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영등굿 연구

- 요왕맞이 마당을 중심으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 등 음 악 교 육 전 공

고 현 민

2004년 2월

제주도 영등굿 연구

- 요왕맞이 마당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변 미 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 등 음 악 교 육 전 공

고 현 민

2004년 2월

고현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년 2월

차 례

논문 요약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제한점	3
4. 용어의 정리	5
5. 연물 해설 및 악보 기보법	6
II. 영등굿 개관	11
1. 영등굿의 유래 및 의의	11
2. 영등굿의 제의 과정	15
III. 요왕맞이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	20
1. 초감제	20
2. 요왕질침	147
3. 요왕문 열림	195
IV. 결 론	226
참 고 문 헌	230
ABSTRACT	233

표 차 례

< 표 1 > 칠머리 당굿 제보자	4
< 표 2 > 빠르기 고유명칭	8
< 표 3 > 춤반주 연물의 장단 표기법	9
< 표 4 > 무가 반주 연물의 장단 표기법	9
< 표 5 > 악보에 사용되는 부호	10
< 표 6 > 제주도 지역별 영등굿의 제의 과정 비교	16
< 표 7 > 초 감 제	145
< 표 8 > 요왕 질침	194
< 표 9 > 요왕문 열림	225

악 보 차 례

< 악보 1 > 베포도업침	21
<악보 2-1> 날·국 섬김 ~ 열명올림	30
<악보 2-2> 연유닭음	45
<악보 3-1> 군문열기(어느 신전님네 요왕 연맞이로 ~)	57
<악보 3-2> 군문열기(떨어진 신전들 없이 ~)	68
<악보 3-3> 군문열기(어, 어- 허 요왕 연맞이로 ~)	73
<악보 3-4> 군문열기(초군문 이군문 삼서 도군문 ~)	80
<악보 3-5> 군문열기(어 어~허 요왕 황저국 ~)	83
<악보 3-6> 군문열기(어 어~ 아이고 고맙습네다.~)	85
<악보 3-7> 요왕 연맞이로~	89
<악보 4-1> 새드림	103
<악보 4-2> 새드리는 노래	108
<악보 5-1> 오리정 신청례(새는 날날이 드렸었는데 ~)	127
<악보 5-2> 오리정 신청례(요왕 연맞이로~)	131
<악보 5-3> 오리정 신청례(어, 어~허 요왕국 대왕님~)	134
<악보 5-4> 오리정 신청례(요왕 영신 님네~)	138
<악보 5-5> 오리정 신청례(오리정 신청례 연나겨 선상님도~)	139
<악보 6-1> 요왕문 돌아봄(요왕 연맞이로 ~호)	147
<악보 6-2> 언월도로 베기(요왕질 돌아 보나네 ~)	150
<악보 6-3> 작대기로 치우기(어 어~허, 아끈 물망질 혼 물망질)	155

<악보 6-4> 은비따비로 파기(요질을 동서 러래 ~)	159
<악보 6-5> 돌 치우기(어 어~허, 동서러래 파 일렀더니마는)	164
<악보 6-6> 발로 고르기(어 어~허, 큰 돌 작은돌)	168
<악보 6-7> 미레깃대로 고르기(어 ~허, 땡균허야 ~)	171
<악보 6-8> 이슬다리 놓기(어 ~, 동서러래 찢어 ~)	172
<악보 6-9> 마른다리 놓기(청 이슬 다리 놓았더니마는 어데)	174
<악보 6-10> 나비다리 놓기(청수세, 백수세 다리 ~)	175
<악보 6-11> 요왕다리 놓기(청나비 다리노난 그리말곡 ~)	176
<악보 6-12> 올구멍 메우기(으~흐, 요왕 차사국 다리 놓아수다)	182
<악보 6-13> 떡다리 놓기(궁기 궁기 메왔더니마는)	184
<악보 6-14> 인정걸기(떡다리도 놓았습네다.)	185
<악보 7-1> 초군문 열기	195
<악보 7-2> 이군문 열기	198
<악보 7-3> 삼서 도군문 열기	199
<악보 7-4> 사군문 열기	201
<악보 7-5> 오군문 열기	203
<악보 7-6 > 육군문 열기	204
<악보 7-7> 칠군문 열기	205
<악보 7-8> 팔군문 열기	206
<악보 7-9> 요왕문 열기 마무리	220

논 문 요 약

제주도 영등굿 연구

- 요왕맛이 마당을 중심으로 -

고 현 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변 미 혜)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당이 있으며 집안에 사소한 걱정거리나 바라는 일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당을 찾는다. 작은 규모의 비념의 형태나 혹은 심방을 빌어서 하는 개인 굿, 마을 단위의 당굿이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해녀와 어부들의 생업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바다밭의 풍요를 기원하고 해상의 날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영등굿이 마을단위로 거대하게 행해져왔다.

제주도민의 1년 생활의 시작은 2월 영등굿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식·주 해결을 바다에서 해야 했으며, 목숨까지도 바다에 내맡겨야 했으므로 영등굿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게 성대하게 열렸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의식구조 및 생활, 제주도 음악의 특징 등 문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영등굿에 대한 국문학적, 민속학적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음악적인 접근은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등굿의 요왕맛이 마당을 통해 제주도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요왕맛이 마당은 영등굿의 일부로서 영등굿의 성격 및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을뿐 아니라 표현방법에 있어서 가창, 춤, 연물, 연극적 행위, 신앙민들과 어우러지는 것 등 다각적인 면에서 함축적이면서도 핵심적으로 영등굿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요왕맛이 마당만으로도 영등굿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제주도 영등굿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요왕맛이 마당(초감제, 요왕질침, 요왕문 열림)의 음악적 내용을 사설 낭창과 연물, 심방의 연행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장을 직접 녹화한 비디오 테잎과 녹음 테잎을 채보하여 구성음과 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물치기는 각 연물 가락의 특징 및 연물치기와 심방의 연행이 어떻게 연결되어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요왕맛이 마당의 음악적 특징을 구성음과 선율면에서 보면 구성음의 경우 대체로 5도 이내로 좁은 편이고 한·두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 낭창이 이루어지며 선율선의 변화가 없이 밋밋하고 장단꼴이나 선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설이 끝날 무렵 마무리 사설의 첫음을 고음에서 하행하며 변화를 주고 마지막 부분은 말하듯이 엮어 낭창하면서 끝음절을 끌어 내리거나 올리는 특징이 있다.

연물치기의 경우 시작은 항상 기본 박을 짚어주는 감장연물로 이루어지며 이후에 잔가락을 넣어 복잡한 장단꼴을 구사하나 끝날 때에는 잔가락을 빼고 기본 박을 짚어주는 것으로 보통 마무리가 된다. 연물에 색채를 더해주는 것은 북의 역할이며 심방의 춤은 굿의 이야기와 맞물려 연물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고조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하는데 극적인 긴장감이나 굿 내용이 고조되는 부분은 가창보다는 연물과 춤에 의해 격렬하게 표현된다.

초감제는 대체로 굿을 시작하는 마당으로 심방의 사설 낭창이 위주가 되다가 군문열기에 이르러 연물과 춤이 재차를 이끌며, 요왕질침은 심방의 연극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한편, 요왕문 열림은 규칙적인 장단을 지닌 심방의 가창과 신

양민들의 연행이 한데 어울려 마지막을 이룬다. 각각의 재차는 곳의 내용에 따라 무가, 연극적인 춤동작, 연물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재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소재차들이 모여 요왕맞이 마당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규칙적인 장단을 지닌 가창으로 ‘새드리는 노래’와 ‘요왕문 열기’는 장단 꼴과 선율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라 익히기 쉽고 사설의 내용도 현재 어린이 및 어른들의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에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곳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설만 가지고, 또는 연행이나 연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주도 영등곳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토속 음악 및 교육적 지역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본 논문은 2004년 2월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도를 가르켜 무속의 섬이라 한다.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1~2개의 당이 있으며, 이러한 당은 과거에 무속이 성행했던 그 잔재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집단적인 '당굿'이나 개인적 축원형의 '비넙'이 성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형의 당'이다.

제주도 당굿의 본풀이를 보면 단순한 신의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당신(堂神)의 내력담이면서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내력담이고, 마을의 역사와 상통하는 것으로 그 속에는 제주도민의 좌절과 저항의 삶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 무속은 제주도민의 살아있는 삶의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영등굿은 2월 전반기에 일시 내방하는 풍우신(風雨神)인 영등신을 위한 풍어부락제(豐漁部落祭)의 성격을 띠는 굿으로 본향당신처럼 본향당에 고정되어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 꼭 본향당에서 영등굿을 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대체로 본향당에서 영등굿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영등 신앙은 한본토 중부 이남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영등 신앙은 한 본토와 많은 차이점을 나타낸다. 중부이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영등 신앙은 산간, 내륙 지방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농업을 관장하고 보호하는 가정 개별 의례인데 반하여 제주도의 영등 신앙은 해안 부락을 따라 발달해 있으며 바다 발을 관장하여 씨를 뿌리고 해녀들의 채취물을 보호 증식하는 해녀신으로 성격이 변모하여 공동 부락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굿의 규모가 크고 구성이 다채로울 뿐 아니라 조선조 이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제주도 당굿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성대하게 간직하고 있어서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영등굿의 일종인 칠머리 당굿은 1980년 제주도를 대

표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승·보전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생업과 연결되어 공동 부락제로 열리는 영등굿은 요왕맞이 마당에 이르러 영등굿으로서의 성격이 최고조로 나타나며 표현방법 또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하나의 커다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즉 영등굿은 요왕맞이 마당에서 심방의 사설이나, 가창, 춤, 연극적인 행위 등을 통해 신앙민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며 또한 다른 개인 굿이나 장시간의 본향당굿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연행들이 압축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요왕맞이 마당만으로도 영등굿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요왕맞이 마당만을 따로 떼내어 하나의 굿판을 형성하는 줌수굿들도 많이 행해지나 영등굿 전체 굿판속에서의 요왕맞이 굿보다는 규모가 축소되고 다소 개인적, 소집단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체 영등굿 속에서 요왕맞이 마당을 살펴봄으로써 제주도 영등굿을 이해하고자 한다.

20세기에 접어들어 민족학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무속과 민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제주도에서도 1950년대를 전후하여 국문학자와 민속학자를 중심으로 무속의 구비문학적, 무속적 가치를 찾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국문학적, 민속사학적 가치를 찾는 활발한 연구에 비하여 음악적인 접근은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미비하였다. 무속의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안목으로 무속을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제주도 무속은 샤만이나 한본토 중부 이북의 신내림하는 강신무와 달리 제의과정 및 절차, 가무를 중요시하는 세습무¹⁾의 형태이며 영등굿의 경우 규모가 크고 성대한 만큼 그 안에 많은 음악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제주지역의 무당들은 세습적으로 맥을 잇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강신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습무당과 강신무당이 가져야 하는 양면성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크게는 세습무당의 계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문학자, 민속학자들의 영등굿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악적 요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요왕맛이 마당 살펴봄으로써, 굿 제차에 있어서 음악의 역할 및 한 본토와는 다른 무속권을 형성하는 제주도 지방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고, 교육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와 지역문화의 보존 및 보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 및 절차를 살피고, 현장 조사에 의한 자료 분석을 기초로 하여 영등굿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요왕맛이 마당의 음악적인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요왕맛이 부분은 초감제, 요왕 질침, 요왕문 열림의 3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부분은 여러개의 소제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왕맛이 마당을 현장 녹화한 비디오 테잎과 녹음 테잎을 채보하여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차별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또한 전체적인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현재 도내에서 영등굿이 행해지는 곳은 대략 15-16곳으로 조사²⁾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현재 칠머리 당굿 기능 보유자로 지정된 김윤수 심방을 비롯한 칠머리 당굿 보존회원들이 행한 1998년 3월 12일 영등 송별제와 2000년 3월 19일 영등 송별제 및 1999년 9월 한국민속예술축제 칠머리 당굿 시연 녹화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의 채보에 사용된 비디오 녹화 자료와 테잎 자료는 2000년 3월 19일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장수산책로(칠머릿당)에서 행해진 영등굿이다.

2) 제주도에서 영등굿이 행해지는 곳

< 표 1 > 칠머리 당굿 제보자

제보자	출생년	출생지	채 록 사 항
정태진	1944년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가창 (무반주 낭창, 용왕문 열림 가창)
정공철	1960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	연물(북), 가창 (새드리는 노래 - 후소리)
마치순	1948년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포	가창, 연물(설쇄) (새드리는 노래 - 전소리)
김윤보	1933년	제주도 북제주군 교래리	연물(북)
고덕유	1974년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월령리	연물(북)
김연희	1955년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연물(설쇄, 장구)
강연순	1952년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연물(설쇄)
고순안	1948년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연물(대영)
이용순	1951년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연물(대영)

구분	읍, 면	동, 리	제일(祭日)	(제명)祭名
북제주군	조천	북촌	2. 13	영등제
	구좌	세화	2. 12	없음
	구좌	하도	2. 12	영등맞이
	구좌	송당	2. 13	영등손맞이
	구좌	우도	2. 15	영등송별제
	한림	수원	2. 1- 5	영등환영제
	애월	상가	2. 14	없음
남제주군	성산	시흥	2. 14	없음
	성산	수산, 신양	2. 13	없음
	성산	신평, 하천	2. 13	영등손맞이
제주시		건입	2 .1 2. 14	영등 환영제 영등 송별제
서귀포시		보목, 효돈	2.12	없음
		서귀, 동홍	2.13	영등손맞이
		도순, 하원	2.14	영등손맞이

4. 용어의 정리

가. 연 물

제주도 무의식에 쓰이는 악기 즉 북, 설채, 장구, 대영(징) 등을 연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연물을 연주하는 것을 '연물친다.'라고 하거나 혹은 악기를 칭하는 명칭과 구분없이 '연물'이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악기로 연주하는 장단중 느린 장단은 '늦은석', 중간 속도로 연주하는 것은 '중판', 빠르게 몰아가는 것은 '자진석'이라 하며 혹은 뒤에 '연물'를 붙여 '늦은석 연물', '중판연물', '자진석 연물' 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연물'이라는 단어가 악기를 지칭하기도 하고 일정한 장단명을 칭하기도 한다.

나. 감상기

이파리가 달린 냇가지에 백지를 매어 묶어 놓은 것으로 이것을 들어 춤추면 신령이 이 기(旗)에 내린다 하여, 이 기를 신이 깃든 신체로 생각한다. 감상기를 들고 추는 춤을 감상기 춤이라 한다.

다. 심방

'심방'은 '신의 형방'의 준말로 신은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주고 심방은 무의 집행을 통해서 그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

한국 본토에서는 무격(巫覡)을 무당, 만선, 박수, 당골, 무녀 등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 통칭한다.

또한 무당이라는 용어도 간혹 사용하는데 이말은 卑稱적인 어감이 있어서 심방 자신들도 좋아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 신칼점

신칼점이란 길이 25cm 내외의 칼 2개를 가지고 점치는 방법이다. 심방은 알

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령에게 물으면서 이 신칼을 지면에 던지고, 그 칼날의 방향을 보아서 신의를 판단한다.

마. 산판점

‘천문’과 ‘상잔’으로 점치는 방법이다. 천문이란 직경 5~6cm 정도의 엽전 모양의 것이고, 상잔이란 못으로 만든 작은 술잔 모양의 것이다.

이 천문 2개와 상잔 2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알아 내고자 하는 사항을 신령에게 물으면서 이것을 지면에 던지고, 그것들이 엮어지고 자빠지는 모양을 보아 신의를 판단한다.

5. 연물 해설 및 악보 기보법

제주도 굿에 사용되는 악기는 보통 대영, 북, 설쇄, 장구, 요령, 바랑이 있는데 요령이나, 바랑은 악기보다는 무구로 간주되기 때문 징, 북, 설쇄, 장구를 보통 무악기로 다룬다.

장구는 심방이 사설을 낭창하면서 직접 연주하거나 혹은 규칙적인 장단을 가진 민요조의 가창을 할 경우에 사용되고 대영, 북, 설쇄는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춤의 반주음악으로서 같이 사용된다.

제주도 굿의 악기편성을 보면 제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대영, 설쇄, 북이 배치되어 있으며, 양쪽에서 동시에 연물치기를 할 때가 있고 한쪽에서만 연물치기를 할 경우가 있다. 또한 장구는 제상 앞이나 옆에 따로 놓여져 있어서 심방이 사설을 낭창할 경우나 소미가 노래 반주를 할 때 사용한다.

1) 대영

보통 ‘대양’ 혹은 ‘대영’이라고 부르며 못으로 만든 대야 모양의 악기로 징과 비슷하다.

직경은 약 30cm, 깊이는 약 8cm이며 위쪽에



< 대 영 >

손잡이용 끈이 달려 있고, 채는 끝을 형곶 등으로 두겹게 감아서 만든 것을 사용한다.

대영은 보통 설쇄, 북 등과 함께 춤의 반주 악기로 쓰이며, 주로 매 장단 첫 박에 많이 치고 소미가 연주한다.

2) 북

높이가 약 30cm정도이고 직경이 30~45cm 정도이며 각각의 북면을 가죽끈으로 조여 만든 양면고를 사용하는데 연주 방법은 대나무로 만든 구덕(바구니)위에 세로로 비스듬이 세워 올려 양손에 북채를 각각 들고 북통의 양면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 북 >

한면은 사용하지 않고 반대쪽 북면만 사용한다. 보통 북의 경우 춤 반주 연물치기를 할 때는 북의 오른면만을 사용하여 오른손과 왼손의 채로 연물치기를 하는데 반하여 규칙적인 장단을 가진 노래를 반주할 때는 북의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하여 연물치기를 한다.

북채는 길이가 약 30cm정도 되는 굵은 대나무 밑둥을 사용한다.

대영과 설쇄가 박을 연주하면 북은 다양한 장단을 구사하며 자유롭고 다채로운 연주법을 구사하며, 또한 장구와 함께 규칙적인 장단을 가진 노래 반주악기로도 쓰인다.

3) 설쇄

돛으로 만든 밥그릇 모양의 악기이며 '설쇠'라고도 한다.

직경이 약 15cm, 깊이가 약 6cm정도이며,바구니 모양의 채 위에 얹어 놓아 연주하는데 이때 채는 나무도막을 형곶으로 감싸고 그 위를 다시 가는 끈으로 촘촘하게 엮어 맨 것을 사용한다.



< 설 쇄 >

채는 양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연주하며, 셀쉐만 단독으로 연주되는 경우는 없고 북, 대영과 함께 춤 반주 악기로 사용된다.

4) 장구

장구는 직경이 약 30cm, 길이가 45cm 정도로 일반 장구보다 조금 작으며 3부분으로 분리되기 때문 '3동막 살장구' 라고도 한다.

치는 방법은 왼쪽 북편은 손바닥으로, 오른쪽 채편은 가는 채를 들고 친다.

요왕맞이 부분에서는 새드리는 노래, 요왕문 열기 가창시 북과 함께 반주 악기로 사용된다.



< 장 구 >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 한배에 따른 형식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 긴-자진, 혹은 만 · 중 · 삭 등이 있는데,³⁾ 이와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 표 2 > 빠르기 고유명칭

빠르기	늦은석	중판		자진석
		늦은 중판	자진중판	
♩.	42~60	72~96	112~136	160이상

요왕맞이 마당의 빠르기는 늦은석, 중판, 자진석 3부분으로 나타나는데 빠르기의 정도는 음악의 연주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3) 장사훈, 한만영 공저(1974), 『국악개론』 (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p.33.

< 표 3 > 춤반주 연물의 장단 표기법

연물	구름/부호	연 주 법
대영	굉	대영의 가운데 부분을 강하게 친다. 대부분을 대영을 한번 칠 때마다 ‘굉’으로 구름한다.
	괴낭-들랑-굉	대영을 1, 2, 3박에 3번 칠 경우에는 ‘강-약-강’으로 치는데 이때는 구름을 ‘괴낭-들랑-굉’으로 한다.
설쇄	열-두-당-번	오른손과 왼손에 쥔 채로 설쇄를 고르게 친다.
북 (양채로 북의 오른쪽 면을 침)	구	왼손으로 북의 오른쪽 아랫면을 약하게 친다.
	따	왼손으로 북의 오른쪽 아랫면을 강하게 친다.
	두	오른손으로 북의 오른쪽 윗면을 약하게 친다.
	당	오른손으로 북의 오른쪽 윗면을 강하게 친다.
	두루루	왼손의 알채를 빠르게 굴러 친다.
요령	}	오른손에 요령을 들고 짧게 흔든다.

< 표 4 > 무가 반주 연물의 장단 표기법

연물	부호	연 주 법
장구	㉠	채편과 궁편을 동시에 치는데 궁편은 궁글채를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을 이용하여 친다.
	○	손바닥으로 궁편을 친다.
		열채로 채편을 강하게 친다.
		열채로 채편을 가볍게 친다.
	:	열채의 끝부분으로 채편을 가볍고 빠르게 굴러 친다.
북 (양채로 북의 양면을 침)	•	왼손에 쥔 채로 북의 왼쪽 면을 가볍게 친다.
		오른손에 쥔 채로 북의 오른쪽 가운데 면을 가볍게 친다.
		오른손에 쥔 채로 북의 오른쪽 가운데 면을 강하게 친다.
	:	왼손의 채로 북면을 가볍고 빠르게 굴러 친다.
	×	오른손에 쥔 채로 북의 윗부분 모서리를 친다.

< 표 5 > 오선보 채보에 사용되는 부호

순	부호	설 명
1	↑ ↓	평균율로 오선보에 기보되는 음정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소리
2	×	불정확한 음을 말하듯이 소리내며 부를때
3	∩	정해진 음가보다 2~3 배 정도 길게 소리낼 때
4	↗	앞의 음에서 소리를 끌어 올릴 때
5	↘	앞의 음에서 소리를 끌어 내릴 때
6	~~~~	떠는 음
7	악보 (예)	○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는 중요음 ● 낭창 및, 가창에 사용되는 음으로 비교적 고르게 사용되는 음 (●) 낭창 및 가창에 사용되지만 비교적 출현빈도가 적은 음
기타		채보는 오선보를 사용하였으며 실음을 위주로 하였음.

II. 영등굿 개관

1. 영등굿의 유래 및 의의

가. 역사적 유래

영등굿은 음력 2월 1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 주로 행해지며 영등 환영제와 영등 송별제가 있는데 어느 것이나 영등굿이다.

영등굿에 대한 기록은 이미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8, 제주목 풍속조에 보인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又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樣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然
燈 是月禁乘船

또 2월 초하루에 귀덕·김녕 등지에서는 나무 장대 12개를 세워 神을 맞아 제사한다. 애월포에 사는 자는 나무 등걸 형상이 말머리같은 것을 얻어서 채색 비단으로 꾸며서 말이 뛰는 놀이를 지어 신을 즐겁게 하다가 보름날이 되면 파하는데 그것을 연등(燃燈)이라고 한다. 이 달에는 배 타는 것을 금한다.⁴⁾

또 『탐라지』의 기록을 보면

諺傳에 大唐商人이 漂沒於州境者, 四體分解하여 頭骨은 入於魚登浦하고 手足은 入於高內 涯月明月等浦라, 故로 每年 正月에 有風이 自西海來則謂之燈神이 降이라하여 聚郡巫하여 作野祀하니 樣形이 如馬頭者를 飾以彩帛하여 作馬戲하여 以娛神하고 至二月旬望하여는 又造船形하여 具帆檣하고 泛于浦口하여 謂之送信이라하다. 是期에 禁乘船

4) 『제주목 풍속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권 V; 서울: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0), p.96.

하다.⁵⁾

이러한 기록의 내용을 오늘날의 영등굿과 비교하여 보면 그 祭日이 2월 1일에서부터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2월 1일에 영등 환영제를 하고 구좌읍 우도 등지에서 2월 15일에 영등 송별제를 하는 것과 일치하며 이 기간동안 승선을 금하여 바다에 나가지 않는 관습도 일치한다. 그리고 굿이 성행하던 귀덕, 김녕 등지는 대표적인 해안부락의 어촌으로서 영등굿이 어촌의 부락굿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서는 목간 12개를 세우고 신을 맞이하여 제사 지냈다고 하였는데 현재에는 대나무 가지를 8개 혹은 10개, 12개를 세워 영등신을 맞이함으로써 조금 변형은 되었으나 기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영등굿이 오늘날까지 민간에 전승되는 것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神名은 「영등」, 또는 「영등할망」이라 하고, 祭名은 영등굿이라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영등맞이」, 「영등손맞이」, 「영등제」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하나 「영등할망」이라는 神名이 널리 통용되고, 영등굿이라는 祭名이 일반적이다.

② 영등할망은 2월 초하루에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배기섬에서 구좌읍 우도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바닷가를 돌면서 미역씨·전복씨·소라씨·천초씨 등을 뿌려주어 해녀채취물을 풍성하게 해주고 15일에 다시 우도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다.

③ 2월이 되면 바닷가에 보말(작은 고동)이 다 속이 비는데, 이는 영등할망이 돌아다니면서 다 먹었기 때문이다.

④ 영등이 들어오는 날, 날씨가 추우면 옷 좋은 영등이 왔다고 하고, 비가 오면 우장 쓴 영등이 왔다고 한다.

5) 담수결편, 증보탐라지, 1954, p274 기문전설조.

⑤ 이 기간에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말아야 하고, 빨래를 해서도 안된다. 만일 빨래를 하여 풀을 먹이면 집에 구더기가 인다.

⑥ 영등굿을 할 때 심방이 「미역이 풍년 든다」, 「조가 풍년이 든다」 등의 예언에 따라 풍흉이 달라지며 신을 보낼 때는 짚으로 작은 배를 만들어 갖가지 제물을 싣고 바다에 띄워 보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영등신은 ①할망이라 불리는 여신이요, ② 강남 천자국 또는 외눈배기섬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來訪神이며, ③풍우등 기상과 관련 깊은 신이고 ④ 해녀 채취물의 증식, 어업 및 농업의 풍요에도 관계 깊은 신임을 추측할 수 있다. 6)

한편, 영등신 신앙은 한본토 중부 이남지역도 분포되어 있어서 2월 초하루가 되면 개별 가정의례로서 영등제를 하는데 여기서의 영등신은 바람신으로서 농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등신 신앙이 제주도에 와서는 어촌과 관계 깊은 바람신으로 성격이 변모되어 해상 안전, 풍어, 해녀 채취물의 보호 증식을 위한 부락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하지만 해방전까지 농업을 주로하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서 영등굿이 행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어촌과 산간마을에서 행해지던 것이 후에 어촌에서만 성행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현재 몇몇 어촌에서 영등굿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상으로 보아 제주도의 영등굿은 조선조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제주도의 지리적·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해녀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 어촌부락신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여 아직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는 풍어 부락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사적 의의

첫째, 영등굿이 촌락의 공동적인 당굿으로서 풍어제의 일종으로 거행되는 것은 제주도만의 현상으로서 이는 제주도 문화가 가지는 섬으로서의 특수성

6) 위의 책 pp. 7-8.

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만 있던 해녀의 존재가 한 본토와는 다른 풍어제의 영등굿으로 성격을 변모시켰고 바다에 생업을 맡겼던 제주도 해녀들은 바다밭에 의지하여 살 수 밖에 없었기 때문 영등신과 요왕신은 그들의 절실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제주도 영등굿은 주민의 생업과 결부되어 대규모의 공동체 촌락 제의로 행해졌다.

둘째, 영등굿의 대상인 영등신은 바다 건너 먼 나라인 강남천자국, 외눈백이섬에서 2월초에 제주도에 내방하여 해녀와 어부들에게 채취물의 보호, 증식 및 풍어를 주고 2월 15일 본국으로 떠나는 내방신으로서 해양문화적 색채를 엿볼 수 있다.

셋째, 제주도 영등굿은 풍어 부락제의 일종으로 해녀들의 채취물을 보호, 증식하는 해녀신, 좀수신인만큼 굿의 내용도 이에 맞는 제차로 구성되어 있다.

요왕맛이 부분에서 16개의 뗏가지를 꽃아 놓고 요왕신과 영등신이 오는 바닷길을 정성들여 치위 닦는 모습을 무용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좁쌀, 흰쌀, 콩 등으로 점을 쳐서 미역, 소라, 갈치 등 해산물의 풍흉을 예견하고 바다에 오곡 씨를 뿌림으로서 바다 밭을 가꾸고 풍년을 기원하는 씨드림 제차,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배방선시 때물이 놀이로서 때배를 만들어 경주하던 약마희 놀이 등은 제주 굿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가무와 놀이, 연극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넷째, 풍어제이면서도 농경의례를 추측할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고 민속 경주 놀이 또한 포함하고 있다.

영등굿은 본래 한본토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농경의례로 행해지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수산의례로 행해지고 있어 농경의례가 먼저이고 수산의례가 전이가 형태로 보이는데 제주도 영등굿에서는 농경의례적인 것이 수산의례로 바뀐 흔적을 다분히 찾아 볼 수 있다. 현재는 없어졌으나 불과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요왕맞이 다음에 행해졌던 세경놀이라든가 바다에 오크씨를 뿌려 바다 밭의 풍요를 기원하는 씨드림 제차 등이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로 만든 나무배인 태우를 만들어서 배방 전시 노 저어 몰아가던 경주 민속 놀이인 약마희 풍습은 제주도 곳의 신명성과 활기를 엿볼 수 있는 향토 문화 축제의 장으로서 제주도 곳의 특징을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영등곳의 제의 과정

영등곳은 제차가 복잡하나 크게 초감제와 요왕맞이의 이중 구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영등곳이 요왕신과 영등신을 맞아 들여 축원하고 기원하는 해녀 곳이니 만큼 요왕맞이는 영등곳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제차라 할 수 있겠다. 즉 영등곳은 신을 청하는 기본의례인 초감제와 신을 맞아 들여 축원하고 기원하는 迎神 축원의례인 요왕맞이의 이분구조로 대별된다.

영등신은 내방신이기 때문 항상 본향당에서 곳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향신을 맞아 축원, 기원하는 제차인 본향들은 곳 하는 장소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있고 생략되기도 한다. 또한 본향당에서 곳이 행해지더라도 영등곳의 성격상 본향당신에 대한 곳은 일부 곁들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바다길을 치워 닦아 기원하는 요왕신, 영등신에 대한 곳이기 때문 본향들의 구성이나 규모가 매우 축소되거나 초감제와 요왕맞이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 정도로 그치게 된다.

요왕맞이는 크게 초감제와 요왕질치기, 요왕문열림 3개로 구분되며 모든 영등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제차 역시 생략없이 공통적으로 행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등곳의 큰 제차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지을 수 있다.

- (1) 초감제 : 모든신을 청하여 좌정시키고 기원하는 제차
- (2) 요왕맞이 : 요왕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아 맞아들이고 기원하는 제차
- (3) 씨드림(씨점) : 해녀 채취물인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를 뿌리고 그 풍흉을 점치는 제차
- (4) 마을 도액막음 :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제차
- (5) 배방선(지드림) :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으로 치송하는 제차

<표 6> 제주도 지역별 영등굿의 제의 과정 비교

제차	구좌읍 하도리 여씨 할망당	성산읍 신양리 영등굿	칠머리당	한림읍 수원리 영등굿
초 감 제	배포도업침 날국섬김 새드림 군문열기 신청케 3헌관절시킴 추물공연	배포도업침 날국섬김 연유닥음 군문열기 새드림 추물공연	배포도업침 날국섬김 연유닥음 군문열림 분부사뵈 새드림 정대우 열명올림	배포도업침 날국섬김 연유닥음 군문열림 열명올림
본 향 뎡	(불도맞이) 1. 초감제 배포도업침 날국섬김 연유닥음 군문열림 분부사뵈 새드림 인정걸기 주잔넘김 신청케 3헌관절시킴 석살림 추물공연 2. 할망질치기 할망본풀이 신청케 악심꽃뛰기 (연회) 석살림	본향뎡 3헌관절시킴 분부사뵈	배포도업침 날국섬김 연유닥음 군문열림 신청케 삼헌관절시킴 자손들소지올림 분부사뵈 석살림 추물공연 나까시리놀림 본풀이	없음

제 차	구좌읍 하도리 여씨 할망당	성산읍 신양리 영등굿	칠머리당	한림읍 수원리 영등굿
요 왕 맞 이	1. 초감제 베포도엮침 날국섬김 연유닭음 군문열림 새드림	1. 초감제 베포도엮침 날국섬김 연유닭음 군문열림 새드림	1. 초감제 베포도엮침 날국섬김 연유닭음 군문열림 새드림 신청케	1. 초감제 베포도엮침 날국섬김 연유닭음 군문열림 분부사됨
	2. 요왕질침 요왕문 돌아봄 신칼로 베기 따비로 파기 작대기로치우기 돌덩이 치우기 나비다리 놓기 요왕다리 놓기	2. 요왕질침 요왕문 돌아봄 신칼로 베기 작대기로치우기 물메로 깨기 돌 치우기 미렛깃대로 고르기 요왕다리 놓기 차사다리 놓기 울궁기 메우기 홍마음 다리 놓기	2. 요왕질침 요왕문돌아봄 언월도로 베기 작대기로 치우기 은비따비로 파기 돌 치우기 발로 고르기 미레깃대로 고르기 이슬다리 놓기 나비다리 놓기 요왕다리 놓기 차사다리 놓기 울구멍 메우기 떡다리 놓기 인정걸기	2. 요왕질침 요왕문 돌아봄 언월도로 베기 작대기로치우기 은비따비로 파기 돌 치우기 미렛깃대로 고르기 비로쓸기 이슬다리 놓기 마른다리 놓기 나비다리 놓기 요왕다리 놓기 울구멍 메우기 떡다리 놓기 홍마음다리놓기
	3. 요왕문 열림 신청케 3현관질시킴 요왕문 열림	3. 요왕문 열림 신청케 분부사됨 요왕문 열림	3. 요왕문 열림 신청케 나까도전침 요왕문열림	3. 요왕문 열림 신청케 3현관질 시킴 요왕문 열림
씨드림	서우젓소리 씨점	씨점	씨멩텅이 놀림 씨점	씨점 서우젓소리
마을 도액막음	마을도액막음	산받아분부사됨	마을도액막음	산받아분부사됨
			각산받음	지아됨
영감놀이	없음	없음	영감청함(연희)	없음
			서우젓소리	
지드림 배방선	배방선	지드림 배방선	지드림 배방선	자손들 산받음 마을도액막음
도진	없음	없음	도진	배방선

예전에는 영등굿의 보름전부터 보름동안 큰 항아리를 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거두어 굿의 경비를 충당하는 절궁패가 있었으며 이 절궁패에는 심방이 2,3명 끼어 있어서 만선이 되었을 때 축하하는 풍어제를 해주고 또한 절궁패에게 춤과 악기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영등굿이 시작되는 2월 1일부터 영등신이 나가는 2월 15일까지 계속 여러 가지 굿이 행해졌으나 현재는 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루나 이틀동안만 굿이 행해진다.

영등굿이 행해지는 지역을 보면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애월읍 애월리, 구좌읍 김녕리 등 대부분이 해안부락을 따라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구좌읍 송당과 애월읍 상가와 같은 중산간 마을에서도 농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이 거행되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일부 어촌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제차 흐름에 있어서는 1965년을 전후로 하여 세경놀이와 약마희 놀이가 사라졌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세경놀이는 풍농굿의 일종으로 성행위를 농사짓는 일과 동일시하여 남편과 시부모의 학대에서 도망쳐나온 여인이 들판에서 강간을 당하고, 임신하여 출산하는 내용을 오락적으로 다룬 것으로 과거에는 요왕맞이와 씨드림 사이에 행해졌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다만 그 흔적으로 오곡씨를 바다에 뿌려서 바다 밭의 풍요를 기원하는 씨드림 제차, 그리고 쌀과 좁쌀, 보리등으로 점을 쳐서 미역, 전복 소라등 해산물과 생선의 풍흉을 알아보는 씨점의 제차만이 남아있어 영등굿이 본래 농업과 어업 관계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중산간 마을에서도 행해졌으나 세경놀이가 생략되고 점차로 풍어를 기원하는 굿으로 해안 부락에서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약마희 놀이는 때몰이 놀이로서 영등굿의 마지막 제차인 배방선을 할 때 마을의 선주들이 짚으로 만든 작은 배에다 제상에 올렸던 갖가지 음식을 조금씩 싣고 자기 뗏목 위에 올려 놓은 다음 서로 앞을 다투어 때배를 노저어 경주하던 놀이로서 짚배가 우도 쪽으로 떠갈 만큼 한 지점에 이르면 수심방이 정지신호를 하며 그러면 모두 짚배를 바다에 띄워 놓아 영등신을 보내는

데 맨 앞에 나간 뗏목은 맨 먼저 영등신을 치송한 것이 되고 그 해에 풍어를 얻는다하여 돼지를 잡아 마을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으며 경주를 하다가 노가 물에 빠지거나 부러진 배는 불길하다 하여 나중에 따로 액막이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약마희 놀이가 사라지고 단지 배방선시 쥘배를 바다에 띄우는 정도로 축소 되었다.

Ⅲ. 요왕맞이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

요왕맞이 굿의 연행과정은 크게 초감제, 요왕질침, 요왕문열림의 3개의 재차로 되어 있다.

초감제는 굿을 알리는 처음의 재차이면서 청신과정으로서 베포도업침, 날·국섬김, 연유닭음, 군문열림, 새드림, 오리정 신청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왕신과 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는 요왕질침 과정은 신을 맞아 들이는 영신과정으로서 요왕문 돌아봄, 언월도로 베기, 작대기로 치우기, 은비파비로 파기, 돌치우기, 발로 고르기, 미레깃대로 고르기, 이슬다리 놓기, 마른다리 놓기, 나비다리 놓기, 요왕다리 놓기·차사다리 놓기, 올구멍 매우기, 떡다리 놓기, 인정걸기로 이루어져 있다.

요왕문 열기는 초군문부터 팔군문까지 요왕 16문을 하나씩 열어 나가는 가창과 요왕문 열기를 마무리하는 사설 낭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초감제

초감제는 굿을 알리는 처음의 재차이면서 청신의 과정으로서 굿하는 장소, 날짜, 연유를 알리고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신과 영등신을 청해 들이는 것이다.

초감제의 구성은 베포도업침, 날국섬김, 연유닭음, 군문열림, 새드림, 오리정 신청례의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베포도업침

베포도업침이란 「베포친다」와 「도업친다」의 합성어로서 천지 개벽으로부터 일월성신의 발생, 산수국토의 형성, 국가의 발생, 중국·한국의 역사·지리등 자연·인문현상의 발생을 차례차례 노래해 가는 것으로 자연 현상을 노래하는 부분을 「베포친다」라 하고 인문현상을 노래하는 부분을 「도업친

다」라 한다. 7)

먼저 수심방이 일어서서 제장을 천천히 빙빙 돌며 자유장단으로 된 무가를 악기반주 없이 혼자 부른다. 한 단락의 무가가 끝나면 다음 단락의 무가가 시작되기 전에 북, 설쇠, 대영 3악기가 늦은석 연물치기를 하고 심방은 연물치기에 맞춰서 제장을 천천히 빙빙돈다.

<악보 1> 베포도엮침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72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1-1)

7)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서울:집문당,1986), pp.262-263.

8) 악보에 사용된 부호

부호	사용 예	실제음
~		
~.		

천 왕 배 포 — — — 으 — — — — —

천 왕 배 포 도 업 으 — — 을 제 이 르 나 안

지 왕 배 포 도 업 험 네 다 — —

지 왕 배 포 도 업 허 난 인 왕 — 앙

배 포 도 업 이 되 어 읊 네 다 — — 요 왕 연 맞 이 더 래 가 라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1-2)

♩ = 63~73

♩ = 63 - 73

요 왕 연 맞 이 로 — — — 호 인 왕 배 포 도 업 허 나 — 안

상 도 업 험 네 다 — — 물 도 업 험 네 다 — —

국도업 험네 다 - - - 왕배포도도업 험네 다 - - -

원배포 - 신배포 도업이 되었 고나 - - -

산지건업 - 도 - - - 흥 칠머리다 - 앙

지방감찰 - 도 - - - 오늘 영등이월

열나 홀날 송별 제로 - - - 호

조손의민을바쳐이저 영허는영 - - -

요왕연맞이어감이 되었 고나 - - -

요와 - 앙 연 맞 이 로 - 로 제청신도업이웨다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1-3)

< 연물 1-1 > 배포도 업침

늦은석 (↓ = 42)														
요령			북				설쇄			대영			박	
부호	부호	부호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괴	굉	1	
		}					두	두	두		낭			
			당	구당	구당	구당	당	당	당		들		2	
				따	따	따	번	번	번		랑			
}		}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3	
}								두	두					
}					구당	구당		당	당				4	
		}		따	따	따		번	번					
4	3	2	6	3, 4	2, 5	1	6	2~5	1	5	4	1~3	순서	
심방이 제장 가운데 서서 사설 낭창을 한후 마지막 사설과 맞물리면서 연물치기가 시작됨. 연물치기를 하는 동안 심방은 제장과 요왕절을 향해 절을 3번 한 다음 양손에 신칼을 하나씩 들고 오른손에는 요령을 같이 들고서 어깨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며 무릎을 굴신하며 제자리에서 천천히 도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때 왼손에 쥔 신칼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 놓기도 하고 양손에 쥔 신칼을 각각의 어깨 위에 올려 놓기도 한다. 대영이 첫박을 시작하고 이어 북과 설쇄가 연물치기를 하는데 잔가락이 별로 없고 모두 박을 짚어 주며 마지막 장단은 북과 설쇄가 연물치기를 마무리한다. ‘구당’ - 북의 ‘구당’ 주법은 장구의 ‘기덕’과 유사한 것으로 알채로 북의 아랫면을 치고 난 후 옷채로 빠르고 강하게 이어치는 주법으로 연물치기 내내 나타난다.														춤 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 연물 1-2 > 배포도 업침

늦 은 석 (♩ = 46 ~ 50)														
북							설채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괴	굉	1
				따			두	두	두			낭		2
	구당	구당			구당	구당	당	당	당			들	굉	
														3
	따	따	두루루		따	따		번	번			낭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굉	4
								두	두					5
	구당			구당	구당	구당		당	당		굉		굉	
														6
	따	두루루	따	따	따	따		번	번					
7	6	5	4	3	2	1	7	2~6	1	4~6	3	2	1	순서
양손에 신칼을 하나씩 쥐고 오른손에는 요령을 같이 잡는다. 앞의 연물치기와 마찬가지로 신칼을 양쪽 어깨 위에 올렸나 내렸다 하면 무릎을 굴신하는 춤을 춘다. 또한 왼쪽 손의 신칼을 오른쪽 어깨 위에 올리기도 한다.														춤 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늦 은 석 (↓ = 46 ~ 50)						
요 령						박
부 호	부 호	부 호	부 호	부 호	부 호	
}}						1
}}						
}}						
			}}			2
			}}			
			}}	}}		
						3
					}}	
						4
	}}	}}			}}	
6	5	4	3	2	1	순서
						춤 동 작 및 연 물 치 기 특 징

< 연물 1-3 > 배포도 업침

늦은 중판 → 자진 중판 (↓=108 ~ 120)													
북							설채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1
두							두	두	두				2
구당					구당		당	당	당			굉	
													3
구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번	번	번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굉	4
	당						두	두	두				5
			당	구당	구당	구당	당	당	당	굉		굉	
두루루	당					두		번	번				6
14	13	12	11	10,19, 20	2~9 30	1	36	2~35	1	14	11~13 15~29 32~35	1~10 30~31	순서
오른손에는 신칼 하나와 요령 1개, 왼손에는 신칼 하나를 들고 어깨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무릎을 굴신하며 제장을 한 바퀴 돈다. 그리고 왼손의 신칼을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 놓고 요왕질 끝까지 걸어간다. 요왕질 끝까지 걸어간 후 신칼을 양쪽 어깨에 한번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한 후 앞과 마찬가지로 왼손의 신칼을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 놓고, 오른쪽의 신칼과 요령도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 놓은 채로 요왕질을 걸어서 다시 제장으로 나온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늦은 중판 → 자진중판 (↓=108 ~ 120)														
북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박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따						
	구당	구당				구당	구당						당	2
								따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3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4
따				따			따	따	두					
두	두								구			당		4
구	구			따			따	따	당					
당	당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34	31~33	29	28	27	25,26 35	24	23	22	21	18	17.36	16	15	순서
제장 가운데로 나온 후에 양쪽 어깨에 신칼을 올렸다 내렸다 한 후 제자리에서 한 번 무릎을 꿇신하며 돈 다음 제장 가운데에 선 채로 사설 낭창을 한다.														춤 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1) 구성음



비교적 사설은 짧게 붙여서 낭창하고 마지막 글자는 길게 빼어 소리내는 경향을 보이는데, 불특정한 음으로 사설을 빨리 몰아서 낭창한 후 마지막 음절을 길게 빼어 소리내거나 혹은 마지막 음절을 부드럽게 올려서 길게 빼어 소리내면 사설낭창이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것을 날국섬김이라 하고 연물치기 없이 바로 열명올림으로 이어지는데 열명올림은 제주도의 각 기관과 해녀, 선주들이 무

사 안녕과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정을 걸고 이름을 제장 앞에 길게 일렬로
 걸어두는 것이다. 심방은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복을 빌어준다. 날
 국섬김과 열명올림은 베포도엮침과 같이 일정한 장단이 없으며 심방은 4·3,
 4·4조의 사설 음절에 맞추어 불규칙하고 자연스럽게 사설을 낭창하고 각 단
 락의 끝부분은 사설을 빨리 몰아쳐서 낭창한 뒤 끝음은 길게 빼면서 한 단락
 을 마무리하는데 끝음의 낭창과 동시에 북, 장구, 대영 3악기의 자진중판 연물
 치기가 이어지며 이 사이에 심방은 제장을 천천히 빙빙 돈다.

<악보 2-1> 날·국 섬김 ~ 열명올림

가 창 : 정태진(남 57 세)

채 보 : 고현민

♩ = 72~80

요 왕 연 맞 이 로 -- 호 제 청 신 도 업 제 이 르 나 -- 안

날 은 어 느 -- 날 둘 은 어 느 둘

을 봄 -- 너 -- 언 됩 네 다 --

이 천 년 은 경 -- 진 년 --

9) 악보에 사용된 부호

부호	사용 예	실제음
ℳ		



열 두 달 뒤 네 - - 다 -

하루 가고 - - 어떤 먼 감 인

드는 - - 공 성 을 립 기 느 혼

국 은 말 라 갑 네 - - - 다

강 남 천 자 - - - 국 일 본 주 년 국

우리 나 라 대 한 민 국 - - - - 뒤 네 다

첫 성 월 은 송 동 여 판 없 구 - - - - - 은

들 채 허 난 서 우 울

세 켜 서 회 - 네 켜 동 경 - 서 울

다섯 찬 저 국 남 상 서 울 안 동 방 풀 자 동 방 풀

먹 창 고 울 불 텡 대 팔 나 른 업 게 해
 경 상 도 는 — 칠 십 칠 관
 전 라 도 는 — — 오 십 삼 관 이 요 — —
 하 삼 든 삼 십 삼 관 입 네 다
 땅 은 보 난 녹 이 동 천 지 땅 — —
 산 은 보 니 니 — 할 로 영 산 입 네 다
 오 벽 장 군 — 오 벽 선 서 — 허
 오 실 성 단 팔 — 머 리 — — 허
 혼 굴 읍 서 — — 영 영 등 왕 도 사 장 공 덕 울 리 는
 서 민 내 리 다 어 — 허

성 은 이 촌 - 목 은 - 과 양

을 축 - 삼 월 - - - 열 사 홀 나 - 할

고 랑 부 삼 성 - 진 도 업 현 섬 입 네 다 - 하

적 의 연 감 대 정 머 리 - - -

오 판 판 판 명 월 만 로 - - -

끝 은 진 주 - 감 장 허

놀 은 갈 라 - 감 게 - 어 으 - - - 어 으 - - - 은

십 삼 년 가 은 - 데 제 주 시 도 삼 삼 문

일 저 당 뵈 네 다 대 팔 청

산 지 건 업 - 동 어 - - - 호

칠 머 리 지 방 감 찰 판 됩 네 - 다 어 허
 영 등 성 방 영 등 대 왕 영 등 할 망
 영 등 호 방 영 등 이 방 은
 칠 머 리 당 어 허 남 당 칠 머 리 당 은 -
 영 등 2 월 달 은 송 별 대 제 일 이 고
 영 등 이 월 열 나 홀 날 은
 이 거 워 허 송 별 대 제 일 로
 이 번 소 섬 으 로 허 영 내 일 날 부 턴
 제 주 삼 업 을 본 명 기 명 -
 해 상 에 연 오 국 난 열 육 구 풍 등 월 시 기 먼

영 등 재 로 허 원 정 올 릴 때 느 혼

산 지 건 업 동 언 여 칠 머 리

지 방 감 찰 -- 관 으 -- 은

나 라 에 국 가 -- -- -- -- 허 칠 십 일 호 로

경 되 었 습 네 -- -- 다 으 -- 혼

한 진 님 전 에 원 정 올 림 기 느 -- -- 혼

열명 올림

♩ = 76~80

우 리 안 의 제 주 도 위 한 국 문 화 예 술 -- 진 흥

원 장 의 예 직 원 일 동 님 네

소원 성취 시켜 줄셈 허영 원정 드리고 — — 위

문 화 재 청 장 의 직 원 일 동 과

우리 안 의 제 주 도 지 사 님 의 에

도 청 직 원 일 동 — — 님 네 — 해

또 여 기 저 는 제 주 도 의 회 의 장 의 직 원 일 동 님 네 여

제주 시장 의 직 원 일 동 — — 이 여 — — 위

제 주 시 의 회 의 장 의 직 원 일 동 님 네 해

받 아 든 공 성 — — 네 다

10) 악보에 사용된 부호

부호	사용 예	실제음
ㄴ		


 제주도 교육 청 — 교육 장 의 직 원 일 동 파


 제 주 도 지 방 경 찰 청 장 의 직 원 일 동 — 념 네


 받 아 든 원 정 — 이 고 — — 으 — — 은


 제 주 해 양 경 찰 서 장 의 직 원 일 동 — 파 — 하


 제 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의 직 원 일 동 념 네 해


 소 원 성 취 시 겨 줌 섰 원 정 드 리 고


 건 입 동 장 의 직 원 일 동 념 네 여


 선 주 협 회 회 장 의 직 원 일 동 — — — — — 은


 산 지 어 촌 계 해 녀 회 장 의 직 원 일 동 념 네 해

반 아 든 공 성 — 네 다

또 이 저 는 놀 이 패 한 나 락 풍 물 굿 패 신 나 락 — — — 패

자 손 덜 토 소 원 성 취 바 는 시 거 줍 셴 허 고 욱

삼 공 여 남 진 호 김 중 혁 이 —

선 주 님 네 도 받 은 공 성

구 공 일 예 공 삼 공 강 병 꺾 이 네

받 은 공 성 — — — 네 다 — — — — — 으 혼

제 주 시 건 입 동 칠 공 구 다 시 십 파 — 알

이 태 양 호 모 래 — — — — 앤 성

이 자 손 덜 — 해 질 해 영 땀 기 는 질

선관질을 발류와 즐겁게 하영

요왕황제국에 등잔하네 들고 옥위

어

건입동 칠공구

일다시십팔칠 태양호문의성

됩네다 또이저

칠공구일십팔 칠특명호모래선도

땡기는선관질을 발류와주고

제주시건입동 일공이

태양호모래선 됩네다

또여기저는 - 칠공구 다시 이팔삼십일 태양호

화물선도 땀기는질-마다-

선관질을 발화줍싸 원-정-

드림- 네다

또여기저는 칠공구이팔

이십육태양호 화물선도

화물실영가곡오곡 허는질에헤

선관질을 발화줍센허고육

백이호공영호 선조조현준이

받아든공서가 됩네다 - - - 으- - - 으

또 이 저 느 ----- 혼 또 여 기 저 느 은
 선 조 이 연 주 받 은 공 성
 용 주 - 선 주 포 황 용 에 받 은 공 성
 영 남 호 선 조 남 경 교 받 은 공 성 네 다 -
 춘 경 호 선 조 최 보 먼 받 은 공 서 영
 칠 오 태 광 목 선 주 방 문 대 게 받 은 - 공 성
 삼 공 삼 신 광 호 선 조 황 신 익 이
 받 은 공 성 - 네 다 - -----
 또 여 기 저 느 - - 혼
 제 주 상 업 조 창 경 호 선 조 김 관 식 이 - - - 히

몸 받은 선 왕 님 도 선 관 절 도 발 류 와 줌 세 -
 원 - 정 - - - 드 리 - 읊 고
 서귀 포시 동 흥 동 천 오 백 육 십 이 다시 4 번 지
 고 현 - 민 이 받은 - 공 서 - 영 읊 습 - 네 다
 성 일 호 선 조 이 종 필 이 받은 공 성
 제 일 진 성 호 선 조 이 종 필 이 받은 - 공 서 영
 제 할 랑 호 선 - 주 - - 이 종 필 이 받은 - 공 성
 오 공 구 선 강 호 선 주 박 정 국 이
 선 강 정 주 공 이 받은 공 서 영
 선 주 협 회 선 주 일 동 님 네 - 받아 든 공 성 네 다

일 공 팔 경 신 호 선 주 김 한 석 이 받은 공 서 영

동 경 호 선 주 정 이 일 받은 공 성

팔 공 팔 감 정 호 선 주 김 정 치 --- 받은 공 성

팔 팔 동 정 호 선 주 김 동 석 이 받은 공 성

민 요 패 소 리 허 는 분 들 받 아 든 공 서 영 을 습 네 다

어 떠 현 때 문 으 로 이 원 정 을 립 네 까

이 자 손 델 --- 해 너 마 다 위

영 등 이 월 초 호 루 환 영 제 기 도 올 리 고 --- 옥

열 나 --- 홀 날 오 널 송 별 제 로 어

한 집 에 유 망 족 속 울 려 허

건 입 - 동 참 정 코 저 나 루 될 일 면 수 시 거 줍 세

원 정 을 리 는 일 아 니 - - - - 입 네 까

또 여 기 저 는 - -

우 리 제 주 도 호 각 기 관 님 네 해

모 두 - - 이 거 아 임 아 프 가 들 영

모 든 경 제 력 이 - - - 모 - 자 러 영 - 이 저

영 허 꼭 영 허 - 난

심방은 왼손에 신칼을 들고 일어선 채로 제장 앞에 일렬로 길게 걸린 각 기관과 해녀 및 선주 등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씩 호명하며 영등신에게 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1) 구성음



2) 선율

하나의 음(‘솔’)에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어지나 심방이 새로운 단락의 사설을 낭창할때에는 첫음이 조금 높아져서 ‘라’음에서 사설을 낭창하기도 한다. ‘솔’, ‘라’음에서 사설 낭창을 하다가 4도 하행하여 ‘레’음에서 사설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즉 ‘솔→레’ 4도 하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난다.

다. 연유담음

연유담음이란 곳을 하는 이유와 동기를 간절히 말하고 영등신과 요왕신이 오기를 청하는 부분으로 심방은 제자에 선 채로 무반주로 사설을 읊고난 후 북, 설쇠, 대영의 자진 중판 연물에 맞추어 제장을 빙빙도는 춤을 춘다.

<악보 2-2> 연유담음

가 창 : 정태진(남 57 세)

채 보 : 고현민

♩ = 72~80



일만 어부 해녀 - 땀기는질 마다 선판질을

잘 발류와 줌새 - 축원 - 원정을

울리는 일 아님 - 네까 -

아이고 불쌍한 좀녀 딸 - - - -

글도 알도 못허 영 물질배왕 나쁜 태와 감겨 영

물망사리 - - 아픈 - 비창 - - - - - 들 영

짙은 물썸 얇은 물썸 숨비어 들 멍

말모른 - 궁전 돌랑 짙은물에 들 영 나 들 영 - 나

허는 자손들 마다 여요왕 예선 - - - - - 녀나 계도 말고 옥

궁거 팽창 혈일 면수 시 거 - 주 꼭 이 - - - - 허

금년 이천 년 남은 해 후 년에 아 이 고 영 등 할 마 님

오늘 돌아 가 곡 내 일 랑 은 본 지 국 더 래 갈 텐 가 — — —

오 마 안 어 불 어 장 예 오 국 난 열

씨 를 뿌 러 — — 두 영 감 씨

경 히 여 아 이 자 손 털 일 만 해 너 네 들

이 거 워 영 업 삼 앙 사 는 자 손 털 아 님 네 까

이 자 손 털 요 왕 국 에 서

먹 을 연 목 입 을 연 목 내 수 와 — 줍 씨

원 — 정 — — 드 — 는 — 일 되 읍 — 네 다

그 뿐 아 니 라 — —

화물 선 - 이 나 무역 선 이 나 - 하
 명 기 는 선 관 절 잘 발 류 와 주 고 옥
 화물 실 영 가 명 오 명 이 런 높 은 바 다 -
 무 서 운 절 국 에 - 냉 겨 줍 씨
 영 - 허 - - 영 원 정 들 곡
 또 여 기 저 는 - - 우 리 제 주 도 에 서
 어 느 흐 의 국 더 래 가 느 - - - 혼
 화 물 이 나 어 느 의 국 에 서
 오 는 모 래 라 도 곱 게 곱 게
 잘 - 도 착 시 겨 주 곡 영 - 허 - - 영

이 자 손 털 — — 땀 기 는 걸 다 다 —

안 평 대 길 시 겨 줍 셴 허 영

원 정 — 드 는 일 아 니 되 — — — 엠 네 까

또 이 들 은 — 주 남 기 허 영 이 거 워

저 바 다 동 해 바 다 서 해 바 다

땀 기 머 — — — — 영

어 느 흐 — 외 국 나 라 배 에 부 닥 청

사 고 날 일 털 나 게 — 말 폭 어 느 정 살 령

깊 은 바 당 위 으 신 다 치 게 — — 맵 씨

영 허 영 원 — 정 — — — 드 는 일 아 니 되 — — — 엠 네 까

주 남 기 선 들 랑 — — — 아 이 고 — 주 남 허 영

배 로 혼 배 실 영 가 거 델 랑

동 해 바 다 가 거 델 랑 이 물 방 천 고 득 고 득 허 게 —

고 득 영 오 게 허 여 줍 씨 원 정 들 곡 —

또 이 저 느 은 어 불 어 장 잘 되 게

시 거 줍 씨 소 원 올 리 는 일 됩 네 다

무 서 운 파 도 못 만 나 게 허 고 — — — 옥

저 바 당 에 감 혼 자 굴 막 앙 아 이 고 나 살 았 못 허 영

마 음 먹 영 바 당 더 래 도 — 떨 어 지 게 말 곡

영 허 영 아 명 — 한 짐 에 서 — 자 손 델

안평대길 시겨줍써 원정드리는일

황서는물썸네다 물썸은-- 황섭네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유전이면 감천이나

피는장서 복될수가 있습-- 네까

옛어른들-- 곧꼭듣는말씀입네다

그리는공성 표현된말로 꼬옥--

영허난-- 공은값은텔로--가꼭

죄는지슨텔로 간덴말 있습-- 네다

이번참에-- 한집에몸받은이자손덜

해년마다이거-- 허

금년 - 영등이 월 초호를 날

송별제부터 마음먹은 일 -

아님네까 - - 영허난

이자 - 손덜 마음지극정성허영

오늘꼬장 마음먹영 - 한진님에 -

이번 - 소원성취올리는일 아님 - 네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 - -

한전 - 님전 비나이다 -

청금 - 산 요왕님전 - 비나이다

백금산 요왕님전 - 비나이다

요 왕 국 대 왕 님 아

요 왕 국 부 인 님 전 에

비 나 이 다 요 왕 태 저

요 왕 황 저 님 에 비 나 이 다

날 은 갈 라 갑 네 다 금 년 해 는 -

경 진 - 년 영 등 이 월 -

오 늘 열 나 홀 날 - 됩 네 다 - - - 어

오 늘 날 은 아 침 에 는 날 세 우 세 시 우 졌 나 니

깨 끄 터 다 - - - - 오 후 에 는 - 날 씨 가 - - -

좋 아 지 겠 허 님 영 등 - 신 이 어 - -



연유답음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2)

<연물 2> 연유닭음

자진중판 (♩ = 120)														
북								설췌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1
	구													
	두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당	당	당	당			굉	2
	두	두				두								
두루루	구	구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구		번	번	번				
구당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3
		구						두						
	두	두	두						두	두				
	구	구당	구		구당	당	당		당	당			굉	4
	두		두											
	구		구						번	번				
14	13	12	11	10	9	6, 8	1~5,7	14	2~13	1	14	9-13	1~8	
심방은 신칼을 어깨 위로 올려서 제자리에서 빙빙돌며 신칼춤을 추다가 바닥에 앉아 신칼점을 친다. 연물치기의 시작은 박을 짚어 주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것은 이후 모든 연물치기에 적용된다. 북은 처음에는 감장연물을 치다가 감장연물에 잔가락을 넣거나 굴러치는 주법을 구사한다.														춤 동 작 및 연 물 치 기 특 징

여러개의 단락과 연유담음은 마무리하는 마무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락은 사설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나 가락이 일정하게 반복된다.

각 단락의 시작은 4~7음절의 사설을 말하듯이 빨리 몰아쳐서 낭창한 후 마지막 음절은 길게 빼어 소리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각각의 사설은 사설이 길든 짧든 간에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술'음을 중심으로 사설을 낭창하다가 4도 하행하여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다.

1) 구성음



2) 선율

도, 레, 미, 솔 4음이 중심이 되며 단락의 첫 사설은 '솔'음에서 시작하여 계속 동음에서 낭창되어지다가 '레'음으로 4도 하행하여 사설 낭창을 한다.

이때 '솔'음에서 사설이 낭창되어 질때는 '솔'음 한 음에서만 사설이 낭창되나 '레'음으로 4도 하행하여 사설이 낭창될 경우에는 '레'음에서 2도 상·하행 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라. 군문열기

초감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차로 영등신과 요왕신이 오는 신궁문을 열고 신들을 청해 들이는 굿문 돌아봄, 군문열림, 주잔권잔, 분부사뵐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굿판이 고조되고 긴장된 만큼 심방의 춤과 연물치기가 격렬하게 이루어지며 영등굿에서 유일하게 제장 양쪽에서 연물치기가 이루어진다.

사설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북, 설채, 대영이 연물치기를 하고 군문을 열 때는 사설 없이 춤과 연물로 이루어지는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다가 군문 열기가 끝나면 다시 늦어진다. 심방은 신칼을 들고 제장을 빙빙 돌면서 사설

을 읊는데 앞 부분과는 대조적으로 사설을 읊는 속도가 빠르다.

앞의 제차에서는 연물의 속도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였는데 군문열기 부분에서는 늦은석, 중판(늦은 중판, 자진중판), 자진석의 빠르기가 모두 나타나며 그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재차가 끝날때에는 늦은석으로 마무리 된다. 7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으며 각 단락의 길이는 긴 단락과 짧은 단락이 불규칙하게 구성되어 있고, 가락과 장단형에 변화가 많고 연물치기 또한 변화무쌍하다.

<악보 3-1> 군문열기 (어느 신전님네 요왕 연맞이로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게

어 허

어 느 신 전 님 네 -- 요 왕 -- 연 맞 이 로 --

신 -- 도 업 불 -- 며 험 네 까 -- 영 락 가 -- 돌 랑 --

옥 황 상 저 이 하 내 려 지 구 -- 서 천 대 왕 --

산 으 로 산 신 대 왕 산 신 땡 감 -- 물 로 -- 요 왕

뿔 — 내 리 다 — — 동 경 국 대 왕 세 경 국 부 인 님
 청 금 산 백 금 산 요 왕 님 네 — 신 — — 도 업 불 — — 일 입 네 리 — 다
 들 어 가 며 는 — — — —
 요 왕 황 도 왕 입 네 다 성 일 — 버 리 동 경 처 신 —
 등 사 오 는 감 서 — — 도 서
 잡 초 염 라 다 선 대 왕 통 광 판 — — 서 천 대 왕
 진 광 왕 초 판 왕 송 계 왕 오 판 왕 염 — 라 왕 명 성 대 생 평 통
 보 시 절 윤 대 왕 — 지 장 신 불 —
 좌 두 구 두 열 다 섯 동 러 판 판 —
 열 에 십 육 소 재 삼 — 맹 감 — 님 네 여
 천 왕 — 맹 감 은 열 두 맹 감 지 왕 맹 감 은

열 한 맹 감 — 인 왕 맹 감 은 아 흠 맹 감 —
 청 맹 감 에 백 맹 감 북 맹 — — 감 — —
 요 왕 맹 감 선 왕 맹 감 — — — — — 산 신 맹 감 —
 일 혼 여 뒹 — 도 맹 감 입 네 도 — 신 도 업 험 씨
 뛰 어 — 가 며 — — — 처 서 — 판 장 님 네 — 로 — 구 낭 아 —
 천 왕 처 서 지 왕 처 서 인 왕 처 서 —
 어 금 배 방 나 자 — 도 서 나 자 . — — —
 눈 이 — 불 어 황 소 재 고 이 불 락 —
 직 — 서 자 — — — — 입 이 — 크 왁 신 서 재 — — — —
 판 — 장 — 님 네 — 길 재 히 서 자 지 직 서 자 행 — 직 서 자

관 장 님 저 승 일 원 서 자 행 자 님 강 님 사 자

또 이 저 곤 - 굴 령 국 처 서

요 왕 부 영 국 처 서 - 관 - 장 님 - - 네 여

또 이 저 는 땡 도 땡 감 - 삼 천 서 관 장 님 네 - 도 - -

요 왕 연 맞 - 지 로 신 도 업 드 립 네 다 -

들 어 가 며 - 어 느 어 른 날 이 발 구 간 -

채 서 관 장 님 네 - 도 - - - 신 매 워 드 립 네 다

어 - - - 려 - - -

어 느 - 신 전 영 험 네 까 - - -

앞 문 전 은 여 래 도 발 문 전 스 물 여 덜 -

빌 허 름 - 대 법 천 왕
 남 도 집 사 도 협 령 - 물 두 - 집 사 도 협 령 - 입 네 다 -
 오 널 - - - 지 방 감 찰 관 - 영 등 대 제 일 로 -
 웃 송 당 은 금 백 조 - 셋 송 당 은 세 명 조
 알 송 당 은 소 천 국 - 아 들 애 기 여 래 도
 서 울 애 기 스 물 여 텨 - 치 솟 은 - 가 지 가 지 -
 며 느 리 들 한 진 님 - 네 -
 오 늘 - - -
 지 방 감 찰 도 영 등 대 제 일 로 - -
 다 모 들 앓 습 네 다 신 도 업 불 림 씨

들 어 가 며 는
 산 지 야 건 업 등 들 여 사 며 는 지 방 감 - 찰 - 판
 남 당 하 르 바 님 남 당 할 마 님 가는 선 오 는 선 - -
 좌 지 앓 는 길 - 됩 네 다 - - -
 어 - 허 - 어 -
 영 등 - 대 왕 님 - 영 등 할 망 영 등 대 왕 영 등 호 방 영 등 이 방 - - -
 하 늘 이 여 옥 탄 - - -
 오 늘 영 등 대 제 이 일 - - 로 호
 오 늘 요 왕 연 맞 이 - 어 감 되 어 싶 네 다

한진님네 신도업블름썸썸 — 또 여 기 저 — — 는 — 3 — —

어 느 — 신 — 전 — 영 협 네 까 마 는 — —

어 — 허 워 어으 어으 어 — 허

이 곳 — — — — — 칠 머 리 지 방 감 찰 도 칠 십 일 호 —

나라국보에 올라 — 읊 네 다 — 싶 네 다 영 허 난 — — —

어 — — — 전 신 국 이 성 읊 난 시 — — 선 생 님 네 도 —

오 늘 대 제 일 로 신 도 업 블 림 썸 썸 —

아 이 고 이 거 — — — — — 어 —

무 형 문 화 재 여 사 무 실 에 있 는 —

조 상 님 네 — — — — — 다 모 두 — 신 이 시 루

요 왕 연 맞 이 게 신 도 업 불 립 씨 --
 팔 자 구 진 요 왕 경 제 일 식 민 멸
 몸 - 받 은 조 상 님 네 -- 신 국 시 로 --
 신 - 도 업 드 립 네 다 신 도 업 들 어 가 며 어 느 -- 혼
 어 느 신 전 없 거 든 --
 어 -- 히 --
 아 이 고 요 왕 국 에 가 -- 앙
 말 모 른 궁 전 풀 랑 강 --
 인 간 나 직 한 요 왕 연 가 운 신 님 네 도 --
 오늘 은 - 요 왕 영 감 상 더 래 - 신 도 업 불 립 씨 --

또 이 - 저 는 - -

오 늘 요 왕 연 가 운 신 님 네 들 은 -

요 왕 연 가 있 는 자 손 들 은 연 가 죽 신 대 두 허 영

문 안 을 뒀 습 네 다 창 도 -

허 영 보 난 걸 어 수 다 - 영 허 난 -

어 - 허 - 신 - 도 업 불 일 입 네 다 -

신 도 업 들 어 가 며 는 - -

떨 어 - 지 고 - 나 후 된 신 들 은 없 이

요 왕 연 맞 이 로 신 도 업 이 왜 다

군문열기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3-1)

<연물 3-1> 군문열림

자진중판(↓ = 120)																
북											설쇄			대 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1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구		구	당			당	당	당		굉	2
		당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구	구				번	번	번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3
			구													
		두	두									두	두			
		구	구			당	당	당				당	당		굉	4
		당	두	두												
			구	구								번	번			
15	14	13	12	11	10	9	8	3~7	2	1	15	2~14	15	9~14	1~8	순서
심방은 신칼을 어깨 위로 올려서 제자리에서 빙빙돌며 신칼춤을 추다가 (1~6) 바닥에 앉아 신칼점을 친다.(7~13) ▶ 대영이 먼저 연물치기를 시작하고 북과 설쇄가 합류하며 마무리는 북과 설쇄가 한다. 처음 2장단은 기본 장단으로 박만 짚어주는 감장연물을 치며 그 다음에는 감장연물에 점차로 잔가락을 넣어가며 연물치기를 한다.																춤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1) 구성음



2) 선율

‘레’음에서 대부분의 사설의 낭창 되어지다가 2도 하행하여 ‘도’을 경과한 후 3도 하행하여 ‘라’음으로 진행하는 ‘레- 도- 라’의 진행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레’음에서 사설이 낭창되어 지다가 4도 위의 ‘솔’음이 나타나서 변화를 주기도 한다.

사설이 끝날때에는 말하듯이 엮어서 빨리 낭창한 뒤 마지막 음절은 끌어 올린 후 길게 빼어 소리낸 후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

<악보 3-2> 군문열기 (떨어진 신전들 없이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빠르지 않게(보통 빠르기로)

떨 어 진 신 전 들 없 이 — 신 도 업 메 와 수 다 — — —

그 리 말 곡 요 왕 연 맞 이 로 — — 호

천 왕 초 군 문 이 어 찌 되 며 — — — — —

이 군 문 이 어 찌 되 며

삼 서 도 군 문 이 어 찌 되 며

요 왕 태 전 문 - 요 왕 황 저 문 -

동 경 국 대 왕 문 - 세 경 국 부 인 문 -

어 찌 되 며 을 라 읊 네 다

요 왕 채 선 문 - 어 찌 되 며 을 라 읊 네 다

그 리 말 곡 연 날 주 석 산 문 도 -

열 두 집 세 월 이 열 렸 덴 말 이 있 습 네 다

실 이 야 망 으 로 열 릴 수 가 - 있 습 네 까



군문열기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3-2)

1) 구성음



2) 선율

‘레’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을 낭창하다가 2도 상·하행하는 선율형태가 나타나며, 사설의 끝부분에는 4도 위의 ‘솔’음이 나타나서 변화를 주어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는 말하듯이 사설을 엮어 낭창한 뒤 마지막 음절을 끌어 올린다.

<연물 3-2> 군문열림

늦은중판 → 자진중판 (↓ = 112~126~136)													
북								설 췌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괴	굉	굉	1
		당						두		낭			
구	구	구		당	당	당		당		들		굉	2
두	두	두											
구	구	구						번	번	랑			
구당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3
		구											
		두		두				두	두				
구	구	구	구			당		당	당			굉	4
두	두	다	두	두	두								
구	구	구	구	구	구			번	번				
21	16-17	13 27 45	11~12 25	10 24	8~9 20	2~7 14~15 18-19 22~23	1	2~104	1	13,18, 21,24 35,36, 41,42, 83,99	10-12 14-17 19-20 22-23 25-34 37-40 43-82 84-92 100-105	1~9 93~98	순서
오른손에는 신칼과 요령을 들고 왼손에는 신칼을 들고 있는데 왼손의 신칼을 오른쪽 어깨 위로 올려 놓은 후 제자리에서 빙빙 3번 돌고 난 후, 오른쪽 어깨 위에 신칼을 올려 놓은 채로 요왕질을 행해 걸어간다. 요왕질 끝에서 요왕상을 보면서 신칼을 양쪽 어깨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대사를 읊는다. “ 어--- 요왕문도 돌아봅네다.” “ 어--- 요왕 태전문, 요왕 황저문도 돌아봅네다.” (18~21번)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늦은중판 → 자진중판 (↓ = 112~126~136)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두	구당	1
	두					구					두		
	두		두			두					두	당	
당	구	당	구		당	구	구		당		구	구	2
	두		당			두	두				두	두	
	구					구	구				구	구	
구당	두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두		구당	구당	구	두	3
	두		두				구				당	구	
두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따	구	구	구					구	4
두	당		당		두	당	두					두	
구					구		구	두루루				구	
51	49 56	47	46	41~44 58	40	39	38 55	34~37 48 53~54	31~33	30 50	28~29	26 61	순서
요왕질을 갈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 위에 왼손의 신칼을 올려놓고 오른 손의 신칼과 요령은 위로 든 상태로 다시 요왕질을 오금질을 하며 걸어 나온다. 제장 가운데로 나온 후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난 후 양손의 신칼을 어깨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그러다가 양손의 신칼을 위로 든 후 제장을 빙빙 도는 행위를 5회정도 한후 다시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요왕질을 행해 걸어간다.													춤 동 작 및 연 물 치 기 특 징

늦은중판 → 자진중판 (↓ = 112~126~136)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두	구당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구					구		두					
	두	두	당				두		두		두	두	당	
	구	구	구		당		구	당	구	당	구	구당		2
	당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따	구		구	따		
구당	구	두	두		구당	구당			두	구	구당			3
	당	구	구				두	당	구	두		따		
		두	두				구		두	구			따	
		구	구		당		구	구	구	구당	당	구		4
		당	두			두	당	당	당			당	두	
			구	두루루		구				두루루			구	
104	103	102	101	98~100	91~97	65~90	64	63	62	60	59	57	52	순서
▶ 65~90번은 앞의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90번에 이르면 갑자기 속도가 변하여 빨라지면서 91번으로 강하게 이어진다. 요왕질 끝까지 걸어가서는 앞과 같이 양손의 신칼을 어깨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며 대사를 읊다가 다시 왼손의 신칼을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제장을 행해 걸어온다. 제장을 한 바퀴 돈 후 신칼을 양쪽 어깨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다가 연물이 빨라지면서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다음 사설로 이어진다. ▶ 매 첫박에 ‘구당’이 많이 나오며 그 전에 ‘두’가 나와 ‘구당’과 구분없이 이어쳐서 들을때에는 ‘두구당’으로 들리기도 한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악보 3-3> 군문열기 (어, 어- 허 요왕 연맞이로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어, 어- 허

요왕 연맞이로 천왕 초군문 이돌아 보았 습네 다

이 군문 삼서도 군문 - 동경국 대왕 문-

세경국 부인 - 요왕 태전문- 요왕 황저문-

들안 보나 - 안 문- 밀 마 다-

감옥 성방앞아 문을 달아 - 고나 - 으 - - - 흐

여 명 을 린 자 손 멀 채 인 정 역 건 -

발 모 금 수금 채 녀 달 을 일 채 인 정 -

만 여 걸 어 들 어 가 며

시 군 문 열 려 가 며 험 네 열 이 다

그 리 말 폭 연 날 주 석 산 문 도

집 서 거 리 열 린 바 있 습 네 다

본 도 신 감 성 조 실 영 기 압 송 허 며 천 왕 낙 회 들 러 받 으 며

초 군 문 이 여 이 군 문 이 여 삼 서 도 군 문 이 여

삼 백 일 혼 여 뼉 도 군 문 도 열 려

군문열기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3-3)

<연물 3-3> 군문열림

자진중판 → 자진석(↓ = 120~132~168)											
북						설 쇄		대영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구 음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괴	굉	1
구											
두	두					두			낭		
구	구	당	당	당		당	당		들	굉	2
두	두										
구	구					번	번		랑		
두	두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3
구	구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당		당	당			굉	4
당	두	두	두								
	구	구	구			번	번				
13 17-18 55 57 89	11-12 16 54 56 59 88	7-8 53 69-70 72	6 24-26 51-52 58 73-74 85-87	2-5 9-10 31-36 43-45 60-67 75-78 98-105 115-120	1	2~271	1	7~31 33~46 55~99 107-162 204-223 228-270	32	1~6 47~54 100-106 163-203 224-227 271	순서
▶대사 “어- 요왕 태전문, 황저문 열렸습네다.” (37-42번) ▶연물이 빨라질 때 북장단은 1번과 14번 가락을 주로 반복하여 연주하게 된다. 심방은 오른손에 신칼과 요령을 들고 왼손에는 신칼을 든 채로 제 자리에서 한 바퀴 돌고 난 후 요왕질을 향해 걸어간다. 요왕질 끝에서 신칼점을 반복해서 여러번 친 다음에 신칼과 요령 및 감상기를 양손에 감상기를 들고 다시 제장으로 걸어 나온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자진중판 → 자진석 (↓ = 120~132~168)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당		당	당	당		당	2
				따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	3
				따		당	
						두	
					당	구	4
						당	
두루루	두루루						
112-114	71 90-91 97	46-47	37-42 68 79	20	19 23 48-50 92-94 107-108	15	14 21-22 27-30 80-84 95-96 109-111 121-124
▶ 대사 “어- 삼서 도군문도 열려줍써” (109-112번) 감상기를 양손에 들고 제장을 여러번 빙빙 돈고 난 후 감상기를 내려놓고 제장 가운데에 앉아서 다시 신칼점을 친다. 그런 후 손바닥 춤을 추고, 다시 감상기를 들어 제장을 빙빙 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요왕질을 향해 걸어갔다가 나온다. 앉아서 신칼점을 치고 난 후 손바닥을 하늘 위로 향하게 하여 손바닥 춤을 추고 다시 감상기를 들고 빙빙 도는 춤을 춘다. 연물이 빨라지면서 심방은 제자리에서 빙빙 빨리 돌다가 다시 요왕질을 향해 걸어갔다 나온다.							순서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자진석 (♩=208 이상)			
북 구름	설채 구름	대영 구름	박
구 당	열 두	굉	
구 당	당 변	굉	1
구 당	당 변	굉	2
구 당	열 두	굉	3
구 당	당 변	굉	4
연물은 점차 더 빨라지고 앉아서 감상기를 위로 흔들다가 다시 신칼점을 친다. 신칼점을 치고 난후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제장을 도는 동작, 높이 뛰면서 제장을 정신없이 도는 동작을 반복한다. ▶ 연물치기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계속 단순한 장단이 반복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자진중판 (♩ = 138)										
북							설	쇄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1
			두				두			
당	당	당	구		구	당	당		굉	2
			두		두					
	따		구		구		번			
구당	구당	구당	구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3
			당							
	두	두					두			
	구	구			당	당	당		굉	4
	당	두								
두루루		구					번			
10	9	7~8	6	4~5	2~3	1	1~10	4~10	1~3	순서
감상기를 들고 제장을 천천히 한바퀴 돌고 난 후에 요왕질 입구에 감상기를 버리고 다시 신칼을 들고 제장으로 나온다. ▶ 대영은 처음에 항상 4박 모두 ‘굉’을 치며 바로 1,3박에 ‘굉’을 치는 경우도 있으나 1,2,3박에 ‘괴낭-들랑- 굉’을 1-2장단 연주하고 나서 1,3박에 ‘굉’을 치는 경우가 많다. 북은 엿벽자리에서 강하게 ‘따’를 치는 경우가 나타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늦은석 (↓ = 42)					
북		설췌		대 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열	열	굉	1
		두			
			두		
	구당		당	굉	2
			번		
	구당		열	굉	3
			두		
			당	굉	4
			번		
2	1	2	1	1	순서
심방이 다음 사설를 낭창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짧게 늦은석 연물이 1장단 연주된다.					춤 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1) 구성음



2) 선율

‘레’에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다가 2도 하행하여 ‘도’를 경과한 뒤 3도 하행하여 ‘라’에서 다시 ‘도’로 3도 상행하는 ‘레-도-라-도’가 나타나며, ‘라, 도, 레’ 3음으로 중심으로 3도 및 2도 상·하행 진행이 연결되어 많이 나타난다.

마무리는 말하듯이 사설을 엮어 낭창한 뒤 마지막 음절을 끌어 올린 후 길게 빼어 흘러 내린다.

<악보 3-4> 군문열기 (초군문 이군문 삼서도군문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군문열기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3-4)

아무런 동작없이 제장 가운데에 선 채로 왼손에는 신칼을 잡고 사설을 낭창한다.

1) 구성음



2) 선율

‘레’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을 낭창하다가 ‘레→도’로 2도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나며 이때 ‘레’음을 떨어준다. 마지막 사설을 낭창할 때 첫부분을 4도 위의 ‘솔’로 시작하여 변화를 주고 점차로 하행하다가 말하듯이 낭창한 뒤 길게 끌어 올려 마무리 한다.

<연물 3-4> 군문열립

자진중판 (♩ = 132)												
북						설 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괴	굉	굉	1
						두						
							두		낭			
						당	당		들		굉	2
							번		랑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4
			당		당		당	당			굉	
	두											
	구						번	번				
9	8	6~7	5	3~4	2	11	2~10	1	8	3~7 9~10	1~2	순서
제장 가운데에 선 채로 아무런 발동작이나 무용동작 없이 제상을 향해 ‘천문’ 2개를 가지고 산판점을 친다. ▶ 대영이 연물치기를 시작하고 설쇄와 북이 합류한다. 장단이 단순하고 짧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 징

<악보 3-5> 군문열기 (어 어~허 요왕 황저국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어 — — 허 요 왕 황 저 국 — —

요 왕 — 동 경 국 태 황 — 세 경 국 후 — 인 님 — 문 은

끔 게 — 끔 게 — 열 려 산 다 — — —

또 이 저 는 — — 요 왕 태 선 문 — — 열 려 주 며 —

아 니 열 려 — 주 며 올 라 온 다 요 왕 태 선 문 으 로

군문열기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3-5)

<연물 3-5> 군문열림

자진중판 (♩ = 132)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괴	굉	1
			두								
				두					낭		
당			당	당					들	굉	2
				변	변				랑		
	구당	구당	변	열	열		굉	굉	굉	굉	3
				두	두						
		당		당	당		굉			굉	4
				변	변						
9	3~8	2	9	2~8	1	9	4	³ 5~7	2	1,8	순서
▶대영이 연물의 시작을 알리고 설채가 이어 연주되며 북은 2번째 장단부터 들어간다. ‘대영’이 비교적 여러 가지 패턴으로 연주되는데 비하여 북은 간단하고 반복적인 장단을 연주한다.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1,3,4박을 치는 형태가 나타난다. 심방은 앞과 마찬가지로 제장 가운데에 선 채로 아무런 발동작이나 무용동작 없이 제상을 향해 ‘천문’ 2개를 가지고 산관점을 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왼손에 신칼을 쥐고 제장을 천천히 한바퀴 돌면서 사설을 낭창한다.

사설의 첫 부분에 ‘어 어~허’ 라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문구로 사설이 시작된다.

1) 구성음



2) 선율

‘레’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며, ‘레’에서 2도 하행하여 ‘도’를 경과하여 ‘라’로 진행하는 ‘레- 도 라’의 형태와, ‘레’에서 4도 하행하여 ‘라’로 진행한 뒤, 3도 상·하행 진행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사설의 마지막 부분은 말하듯이 엮어서 낭창한 뒤 마지막 음절은 위로 길게 빼어 소리내며 이와 동시에 연물이 연주된다.

<악보 3-6> 군문열기 (어 어~ 아이고 고맙습네다.~)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요 왕 태 선 문 도 곱 게 열 러 줘 네 - 다 - - - - -

경 허 면 요 왕 국 에 서 - - - - - 어 - - -

화 들 선 일 이 영 모 랫 배 영 - - 추 남 기 선 이 영 - - - -

일 만 해 너 어 부 땡 기 는 질

선 관 질 곱 게 밝 아 주 영 -

아 무 사 고 가 없 덴 허 건 아 무 요 구 사 고 내 내

걱 정 이 랑 허 건 - 삼 시 왕 군 문 으 로

군문열기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3-6)

<연물 3-6> 군문열립

자진중판 (↓ = 132)						
북		설쇄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열	굉	괴	굉	1
		두		낭		
		당		들	굉	2
		번		랑		
구당	구당	열	굉	굉	굉	3
		두				
	당	당			굉	4
		번				
3~9	2	1~9	3~9	2	1	순서
심방은 제장 가운데에 서서 제상을 향해 선 채로 산판점을 친다. ▶ 연물은 간단하고 반복적이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늦은석 (↓ = 42)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열	열	굉	굉	굉	1
				두	두				
			구당	당	당		굉	굉	2
			두	변	변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3
			따		두				
	구당				당			굉	4
		따			변				
4	3	2	1	5	1~4	4	2	1,3	순서
심방은 산판점을 치고 난 후 제장에 설비된 3개의 신위 즉 본향신 도원수 감찰지방관과 요왕해신부인, 그리고 영등대왕과 해신선왕신위, 남당 할마님과 하 르바님 신위를 향해 각각 1배하고. 요왕질을 향해 1 배 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악보 3-7> 요왕 연맞이로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요 왕 연 맞 이 로

초 군 문 이 군 문 삼 서 도 군 - - 문

열 러 - 습 - - 네 다 - - 으 - - 흐

시 군 문 열 린 데 채 인 정 잔 털

뿔 이 권 권 - - 드 립 - 네 다

동 경 국 대 왕 문 열 린 디

세 경 국 부 인 님 문 열 린 - 데 도

채 인 - - 정 잔 입 - 네 다

요 왕 태 저 요 왕 황 저 국

동 - 시 군 문 열 린 - 데

채 인 - - 정 잔 덜 많 이 - 권 권 - 험 네 - 다

요 왕 처 서 - 관 장 - - 님

시 군 문 - 열 린 - 데 도 - 채 인 정

잔 입 - 네 다 - - 으 - - 혼 -

아 이 고 는 자 락 - 영 등 이 월 열 나 홀 날

대 제 일 때 돌아 오 랑 우 리 술 혼 잔 주 코

감 주 혼 잔 주 코 아 득 - - -

요 왕 연 가 운 신 웅 변 - - - 님 네 - 도 -

아 이 고 - 정 헌 절 - - - - - 어 - -

젓은 의복 털 입영 - - - - - 독독 털명 -

산 지 죽 항 머 리 - 로

칠 머 리 한 집 더 래 다 읊 네 다 - 하

주 잔 털 많 이 권 권 험 네 - - 다 - -

저 수 지 로 권 권 - - 허 다 워

청 감 주 로 권 권 - - 험 네 - 다 워

아 이 고 이 거 - - - - -

파 도 센 날 - - - - -

아 이 고 - 배 가 알 더 래 침 물 되 영

죽 어 간 영 혼 들 이 영 - - - -

혼 잔 술 먹 영 물 알 더 래 떨 어 진

죽 은 영 혼 들 이 영 - - -

발 이 서 - - 낚 시 질 갓 당 풍 파 만 남

죽 은 영 신 - 들 이 - - 영

맑 이 - 맑 이 - - 주 잔 - - - - 떨

권 - 권 - - - 험 - 네 - - - 다

돌 아 사 며 나 사 며 - - - - 위

문 안 전 갈 여 짝 - 네 다 - - - 으 - - - 혼

아 이 고 산 지 건 엽 동 해 너 - - - - - 허

회 장 일 동 님 네 잘 들 음 씨 어

이 번 영 등 계 로 위 정 설 반 암 보 난 — —

금 년 은 황 금 현 물 액 은 — 어 성 지 날 — 듯

허 염 — — — 수 다 —

또 여 기 저 는 — — —

이 번 해 녀 부 에 서 마 음 정 성 — 먹 었 — — — — 허

한 집 에 이 번 참 에 —

열 두 무 릎 꿀 영 굽 었 일 억 — 굽 었 — 일 억

현 — 두 들 — 기 돌 아 — — 을 듯 —

영 허 염 — — — 시 대 — 그 줄 — — 압 씨

문 안 — — 올 여 줍 — — — — 네 다 —

그 뿐 만 아 니 라

해 너 일 동 잘 들 읊 써 —

금 년 봄 석 달 념 곡 가 울 석 달 — 에 념 곡

겨 울 석 달 되 었 호 꿈 파 도 가

썩 었 보 락 혈 때 가 당 할 거 난 — — —

그 때 에 물 애 들 래 갈 때 — 는 — —

조 꿈 — 아 이 고 — 짝 그 르 게 나 이 먹 은

어 른 — 달 랑 명 심 — — 협 써 — — — —

아 니 고 라 랜 말 앙 어 — — 혼

주 절 석 달 은 호 술 걱 정 이 되 난 영 - 험 - 네 다
 말 째 애 랑 애 기 라 도 도 액 으 로 한 집 - 앞 에 - 서
 잘 막 꼭 - 허 면 - 은 울 구 조 들 연 목 - -
 대 천 - 난 간 밟 으 - - 듯 울 년 - - 목 은
 어 성 - - 될 듯 허 염 - - 수 다
 문 안 여 쥘 어 들 여 가 며 - - 으 혼
 화 물 선 어 선 거 느 령 사 는 자 손 - 들 이 - 영
 모 랫 배 영 거 느 령 땀 기 는 자 손 - 덜 - -
 금 년 은 - 어 덜 가 도 어 위
 절 릴 때 가 어 성 - - 선 관 절 을 곱 게 발 류 - 와 줄 듯

영 허 염 — — 시 매 그 줄 — — 알 곡 —

또 여 기 저 느 혼 이 거 모 랫 배 덜 은

금 년 어 떠 국 허 며 — 는 — —

소 망 일 염 내 년 작 년 도 보 다 어 — — 허

수 익 도 호 쉴 나 슬 듯 영 — 험 — 네 다 —

무 억 선 땡 기 는 절 도 오 — — 호 이 변 참 애 — — 해

영 등 할 마 님 에 서 보 던 거 — — 얼

다 — 해 결 시 겨 줄 듯 영 허 염 — — 시 난

그 리 압 썩 — 어 문 안 — — 여 쥬 — — 엽 고 —

또 여 기 저 는 — 추 납 기 허 영

동해 서해 바다 땡기는 선주 딸 — —

 금년 에는 으 — — — — 혼

 경 좋도 아니 허곡 곳도 아니 허영 —

 밤의 밤송 절때 — — 가 됩네 — — 다

 그 러 나 어느 선왕 에서 어느 녀날 일

 혼날 일은 없을 듯 허염 — 시 매

 그 줄 압씨 문안 — — 여쭙 — — 업고 —

 추 남 기 신 주 선 왕 배 에 어 — 허

 그 날 — 운 수 가 좋 며 는 — — — —

 배 에 — 만 선 — — 되 영 만 선 — — 길을 모 주 — — 영

제 주 — — 항 에 들 어 — — 올 일 — — 도 있 을 — — 듯
 영 허 염 — — — 수 다 —
 또 여 기 저 는 — 건 입 동 의 한 집 에
 몸 받 은 조 손 떨 — — — — — — — — — —
 인 명 축 허 고 인 명 낙 루 혈 일 은 그 다 시
 어 성 지 날 듯 허 염 시 매 그 줄 — — 알 폭
 외 국 간 자 손 이 나 타 의 어 성 허 영 강
 사 는 사 람 떨 토 — — — 크 게 걱 정 될 일 — — — — 혼
 어 성 지 날 듯 허 염 시 매 — — 해 그 줄 압 써 — — — —
 영 허 염 — — 문 안 여 쯔 네 다 — —

(심방대사)

“행여 어른들도 영 정사 반양 보난 큰 의루 거들 연목은 어섬직허우다.”

“큰 걱정 어시쿠다 양”

(해녀들)

“아이고 소망이우다.”



군문열기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3-7)

양 손에는 아무런 도구도 잡지 않고 맨 손으로 마이크만 잡고 제장 가운데
에 선 채로 요왕질과 제상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주없이 사설을 낭창한다.

심방이 사설을 낭창할 때 제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던 해녀들은 앓은 채로
양손을 모으고 절을 한다. 심방의 사설 낭창이 끝나면 바로 연물이 이어지고
연물을 연주하는 동안 다음 재차(새드림)를 진행할 마치순 심방은 제장으로
나오며 준비한다.

<연물 3-7> 군문열립

자신중판(♩ = 120~132)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괴	굉	1
					두	두			낭		
당	당	당			당	당			들	굉	2
					번	번			랑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구	당	당		당	당				굉	4
	두										
두루루	구				번	번					
4,12	3	² _{9~10}	1	14	2~13	1	13	^{3~7} ₁₂	2	¹ _{8~11}	순서
사설을 마친후 연물이 연주되는 동안 정태진 심방은 제장에서 나오고 새드림 제차를 진행할 마치순 심방이 양손에 감상기와 정화수 그릇을 들고 제장 가운데로 나온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 징

자진중판 (↓ = 120~132)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당	2
			구당	3
	따			
		두	두	
	구당	구		4
		두	두	
		구	구	
13	8	6~7	5,11	순서
대영이 연물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 설쇄와 북이 나란히 합류되어 연물치 기를 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군문열기를 마무리 ‘요왕 연맞이로 ~’ 부분은 연유뉘음처럼 여러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락은 사설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나 가락이나 장단꼴의 형태는 일정하게 반복되며 연유뉘음과 구성음 및 떠는음, 장식음, 음진행이 모두 유사하다. 또한 산판점의 결과가 좋아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심방의 축언과 해녀의 대사로 군문열기 재차가 모두 끝난다.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사설을 낭창하다가 2도 하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나며 또한 연유뉘음과 같이 ‘솔’을 중심으로 사설 낭창을 하다가 ‘레’로 4도 하행하여 사설을 낭창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솔’에서 4도 하행하여 ‘레’에서 사설을 낭창하는 경우에 ‘레’음을 짧게 떨어준다.

마지막 마무리는 사설을 말하듯이 엮어서 빨리 낭창한 뒤 마지막 음절을 길게 빼어 소리낸다.

마. 새드림

새드림 재차는 먼저 심방이 감상기와 정화수를 들고 무반주 낭창으로 새드리는 사설을 읊으며 제장을 빙빙 돈다. 사설이 끝난 후 심방은 ♩=140 자진 중판 연물치기에 맞춰 제장을 빙빙도는 춤을 추고 요왕질을 돌아본다. 연물치기가 그치고 심방의 새드리는 노래 첫 시작에 맞춰 해녀들이 모두 제장 가운데 열을 지어 앉으면 장구와 북반주에 맞춰 심방이 새드리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요왕신과 영등신이 오시는 길에 사악하고 부정한 것을 쫓아낸다.

이 때 불러지는 노래를 새드리는 노래라고 하는데 장구와 북반주로 심방이 ♩=76 , 2/♩ 1마디를 선창하면 소미들이 선소리 가사를 그대로 후소리로 받아 1마디를 후창하는 방법으로 불리어진다.

이렇게 하여 새드리는 노래가 끝나면 북, 설채, 대영이 ♩= 140 자진 중판 연물치기를 하는 동안 심방과 소미는 신칼을 들고 제장 가운데에 열을 지어 앉아 있는 해녀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머리와 어깨를 누르며 ‘어, 어’ 하고 소리 지른다. 이렇게 푸다시가 끝나면 심방은 신칼점을 쳐서 새드림이 잘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악보 4-1> 새드림

가 창 : 마치순(여: 52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신들 합동하면 -- 군구성상 활동 --

조손 합동하면 -- 군구성상 활동 --

타이완 협네다 --

오리안 오리배께 -- 십리안 십리배께 --

문 리 야 늘 어 서 난 —

돌 라 내 어 — 소 경 내 어 — 돈 설 간 설 내 어 —

원 주 이 대 간 합 장 이 요 — 마 흔 여 뒸 상 단 끝 합 장 — —

서 른 여 뒸 중 단 끝 합 장 — — 스 물 여 뒸 하 단 끝 — —

이 민 남 을 합 장 이 요 — 대 청 하 늘 들 어 서 난 —

벽 풍 개 상 — 재 물 예 약 — 대 향 배 생 이 여 —

표 정 이 만 방 이 읊 네 다 —

신 의 성 방 합 장 이 요 — 시 송 이 합 장 이 요 —

훈 련 소 정 이 라 —

하 늘 로 노 락 는 천 덕 수 물 — —

지 하 로 노 리 는 지 덕 수 물 — — —

산 으 로 노 리 는 — 나 무 등 걸 썩 어 난 물 —

이 물 저 물 다 물 어 도 —

우 리 마 당 은 화 복 천 수 물 — —

우 리 들 은 초 록 초 대 절 에 — —

오 들 또 기 쓰 다 쓰 다 — — 성 대 썩 오 는 물 —

어 — — — 산 으 로 — 백 더 래 드 리 카 이 오 나 카 입 네 다

새드림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4-1)

마치순 심방은 감상기와 정화수를 들고 제장 가운데에 서서 사설을 낭창하는데 (도, 레)음을 중심으로 사설이 낭창되며 가락과 장단꼴에 변화가 없고 단순하며 사설이 끝남과 동시에 연물치기가 이어지며 연물치기가 끝나자마자 새드리는 노래가 바로 이어진다.

<연물 4-1> 새드림

자신중판(♩ = 132)											
북				설쇠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괴	굉	굉	1
					두			낭			
당	당	구당	구당		당			들		굉	2
					번	번		랑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두					
구		구			당	당				굉	4
두		두									
구		구			번	번					
4,8-9 16,18 20,22 24,29, 30,33, 38	3,15,1 9,21 23	2	1	40	2-39	1	38	36	3-4 8-9 10-15 19-30 37	1-2 5-7 16-18 31-35	순서
왼손에는 감상기, 오른손에는 정화수를 들고 제장 가운데에서 2바퀴를 돈 다음에 요왕질을 향해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제장으로 돌아온다. 제자리에서 빙빙 돈 다음에 감상기와 정화수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새드림 노래를 시작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자진중판 (↓ = 132)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두				
		구			당	2
		두				
		구				
		두	구당		구당	3
		구				
		두		두		
		구		구	당	4
		두		두		
	두루루	구		구		
40	39	17,34	13-14 28	10-12 25-27 31-32	5-7 35-37	순서
대영이 연물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 북과 설췌가 나란히 합류되어 연물치기를 한다. ▶ 북 장단은 비교적 기본박을 쳐주는 것과, 오른손과 외손을 엇갈려서 연속적으로 쳐주는 주법, 굴려주는 주법등이 나온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악보 4-2> 새드리는 노래

가 창 : 선 -마치순(여: 52세)

후 -정공철(남: 41세)

반 주 : 북 -정공철(남: 41세)

장구 -김연희(여: 46세)

채 보 : 고헌민

♩ = 112

요 왕 이 들 어 도 새 야 - 배 고 픈 새 라 도 날 날 이 도 리 저 -

$\mathcal{J} = 76$

셋물로새앙아 구문물산에서

셋물로새앙아 구문물산에서

빛물로—다리자 깊은물에— 헤—

— 빛물로 다리자 — 깊은물—에

용 아 자 - 놀 니 다 알 은 - 물 에 -

— 용 아 자 놀 네 - 다 — 알 은 물 에

새 와 자 - 놀 네 다 부 엇 새 라 — 도 —

— 새 와 자 놀 네 - 다 — 부 엇 새 라 도

쫄 갈 이 - 도 리 자 천 왕 - 새 도 리 자 —

— 쫄 갈 이 도 리 자 — 천 왕 새 도 리 - 자

인 왕 새 도 리 — 자 — 인 왕 새 - 도 리 자 —

— 인 왕 새 도 리 - 자 — 인 왕 - 새 도 리 - 자

하 늘 에 - 부 엇 새 — 앵 아 래 두 닥 — 새

— 하 늘 에 부 엇 새 — 숨 비 기 활 통 - 새

숨비가—할통새 ————— 앞뜰—에 용인새 —————
 — 숨비기 할통—새 — 앞뜰에 용인—새

안깡엔노년— 새 — 사랑엔—시님새 —————
 — 안깡엔노년 새 사랑엔 시님새

도리—고도리자 ————— 조선편아— 허 —
 — 도리고 도리자 — 조선편—아

염라—대로 ————— 요왕은황제— 궁에 —
 — 염라 대로 — 요왕 황제—궁

요왕은황제—국 부인님 — 수정국부인—— 님네 —
 — 요왕은—황제국 — 수정국부인—님

서경국부인— — 님네 — 영등대왕— — 님네 —
— 서경국부인— 님 — 영등대— 왕

영등부인 님네 — 영등— — 호장 따라와
— 영등부— 인 — 영등 호— 장

다승천오는데 — — 새폴라옴네— — 다 —
— 다승천 오는데 — 새폴라옴네— 다

요새를—도리자 — — 부영국처서— — 님네 —
— 요새를 도리자 — 부영국처서— 님

요왕선왕 님네 — 오시는질에도 — — — —
— 요왕— 선왕 — 오시는 질에도

새뽕라옵—— 다 — 요새를—도리자 ————
 새뽕—라옵네—다 — 요새를 도리자

불쌍한영신—— 님네 — 오시는질에도 ————
 불쌍한영신 — 오시는 질에도

새뽕—라옵네다 ———— 요새—를도리자 ————
 새뽕라 옵네—다 — 요새를 도리—자

애물튼새라—— 도 — 물주어—도리고 ————
 애물튼새라—도 — 물주어 도리—고

배고—픈새라도 ———— 쌀주어도리—— 자 —
 배고픈 새라—도 — 쌀주어도리—자

주 어 라 월 - 께 월 께 - - 월 께 - -

- 주 어 라 월 - 께 - 월 께 월 께

저 물 일 아 는 고 - - - - - 요 새 - 아 불 초 사 - - - - -

- 저 물 일 아 는 - 고 - 요 새 아 불 초 - 사

어 기 야 실 어 - - 영 - 하 늘 을 욱 하 는 - - - - -

- 어 기 야 실 어 - 영 - 하 늘 을 욱 하 - 는

문 왕 성 문 도 - - 령 - 글 세 상 저 청 대 - - - - -

- 문 왕 성 문 도 - 령 - 글 세 상 저 청 대

서 수 - 왕 뜰 애 기 - - - - - 문 수 일 도 결 - - 영 -

- 서 수 왕 뜰 애 - 기 - 문 수 일 도 결 - 영

정역을 못가난 ----- 애열이난다 -----

----- 정역을 못가난 ----- 애열이난다 -----

다큰지불소 --- 령 ----- 불타도먹는것 -----

----- 다큰지불소 령 ----- 불타도먹는것 -----

머리로나는 --- 것 ----- 두통새하는것 -----

----- 머리로나는 --- 것 ----- 두통새 --- 하는것 -----

눈으 --- 로곰방새 ----- 구으로호통 --- 새 -----

----- 눈으 --- 로 곰방 --- 새 ----- 구으로호통새 -----

입에는악심새 ----- 가슴에 --- 상열새 --- 예 -----

----- 입에는 악심 --- 새 ----- 가슴에 상열새 -----

애물론새라—도—물주어도리고
애물론새라도—물주어—도리—고

배고—픈새라도—솔주—어도리자
배고픈 새라—도—솔주어도리—자

주—어라월—적—월적—월—적—
주—어라월—적—월—쭈월—적—

도리—다남은—새라—귀양—불라—두번째
도리다남는—것—귀양—불라

나—력—을—막—음—써
나—력—을—막—음—써—어—

새드림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4-3)

1) 가창 방식

새드림은 장구와 북 반주에 의하여 가창되어 지는데 마치순(여) 심방이 선 소리를 하면 북반주를 하는 정공철(남) 심방이 후소리 하는데 1마디 단위로 선·후창이 교대되면서 가창된다.

선소리는 비교적 같은 유형의 가락, 장단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반하여 후소리는 비슷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선소리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가락, 장단꼴이 나타난다. 그리고 북반주는 연물 반주때와는 달리 북의 양면을 모두 사용하여 반주한다. 북을 가운데에 놓고 북의 왼쪽은 왼손으로 오른쪽은 오른손으로 각각 채를 잡고 연주한다.

2) 구성음



3) 선율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가창되며 받는 소리는 메기는 소리를 그대로 하거나 조금 변형하여 부르는데 '솔-레'의 4도 상·하행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선소리의 시작음은 '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솔'로 시작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레'로 시작하는 경우 다음의 진행은 '도'로 이어지고 '솔'로 시작하는 경우 다음의 음진행은 '미'로 진행하는 경우와 '솔'에서 '레→도'로 진행하는 경우 2가지가 있다.

따라서 선소리의 선율 모양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레'로 시작하는 경우의 음진행 '레→도'



▶ ‘술’로 시작하는 경우의 음진행 ‘술→미’, ‘술→레→도’



후소리는 선소리를 그대로 후창하나 음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가창하며 뒷부분의 가사는 선소리의 가사를 그대로 다 후창하는 것이 아니라 선소리의 가사가 길어서 2마디에 걸쳐 노래가 될 때는 앞 부분 1마디의 가사만 후소리로 노래한다.

후소리의 시작음은 새드리는 노래에 나타나는 4개의 출현음 ‘도,레,미,솔’이
 끌고루 나타나는데 ‘레’로 시작하는 경우 다음은 ‘도’로 진행하고 ‘도, 미, 솔’
 로 후소리를 시작하는 경우는 ‘미’로 진행한다.

<연물 4-2> 새드리는 노래

♩ = 76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박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	■	용	⊙	×	깊	⊙		빔	⊙		구				(선)
	:	아			은			물		:	문				
		자		×				로		●	물				
⊙	×	놓			물	⊙		드	⊙		산				
		네			에			리			에				
		다						자			서				
⊙		용	⊙		깊			빔	⊙		구	⊙		셋	(후)
		아			은			물			문			물	
		자						로			물			로	
⊙		놓	⊙	■	물			드	⊙		산	⊙		새	
		네						리			에			앙	
		다		■	에			자			서			아	
해녀 및 신앙민 30여명이 제장으로 나와 10명씩 3줄로 앉은 다음 제장을 행해 절을 한다. 이어 소미가 나와 바구니를 들고, 나와 앉은 해녀 및 신앙민들로부터 인정을 견고 마치순 심방이 새드리는 노래 가창을 한다. 장구는 선·후소리 첫 박을 모두 강하게 치는데 비해 북은 후소리 첫박을 더 강하게 치며 북반주를 하는 정공철 심방은 후소리를 동시에 가창한다.															연 행 및 연 물 치 기

♩ = 76															박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		천	⊙		쌀	⊙		부	⊙		새	⊙		얏	(선)
:		왕	:		가			영	:		와			은	
		새			치						자				
	●	드			드			새			놉	⊙		물	
		리			리			라			네			에	
	●	자			자			도			다	⊙			
⊙	□	천	⊙	×	쌀	⊙	×	부	⊙	×	새	⊙	×	얏	(후)
		왕	:		가	:		영	:		와			은	
□		새	□		치	□			□		자				
	□	드		×	드		×	새		×	놉		×	물	
		리			리			라			네			에	
□		자	□	□	자	□		도	□		다	□			
신앙민들은 앞에서와 같이 제장에 3줄로 꿰어 앉아 있다.															연 행 및 연 물 치 기
장구 장단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첫박을 강하게 치고 후소리는 대부분 북의 윗부분 모서리(변죽)을 친다.															

♩ = 76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박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		애	⊙		요	⊙		새	⊙		오	⊙		불	(선)
:		몰			새			딸	:		시	:		쌍	
		른			를			라			는			한	
		새			드			옴		×	질			영	
		라			리			네			에			신	
	●	도			자			다		×	도				
⊙			⊙			⊙			⊙			⊙	×	님	(후)
						:			:			:		네	
							×						×		
장구 장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북은 엇박으로 강하게 친다. 선소리 첫 박은 강하게 치지 않으나 그 다음에 오는 엇박부터는 아주 강하게 치며 엇박 다음에는 약하게 치던지, 북의 윗부분 모서리(변죽)를 치는 경향이 많다.															연 행 및 연 물 치 기

새 드리는 노래 ♫ = 76																		
다	영	서	수	인	천	쌀	부	새	알	용	깊	빛	구	셋	(선)			
승	등	경	정	왕	왕	가	영	와	은	아	은	물	문	물				
천		국	국	새	새	치		자		자		로	물	로				
오	호	부	대	드	드	드	새	놉	물	놉	물	드	산	새				
는	장	인	왕	리	리	리	라	네		네	에	리	에	앙				
데				자	자	자	도	다	에	다		자	서	아				
다	따	영	님	서	님	수	인	천	쌀	부	새	알	용	깊	빛	구	셋	(후)
승	라	등	네	경	네	정	왕	왕	가	영	와	은	아	은	물	문	물	
천	와	—	국		국	새	새	치		자		자		로	물	로		
오	△	호	부		대	드	드	드	새	놉	물	놉	물	드	산	새		
는			인		왕	리	리	리	라	네		네	에	리	에	앙		
데		장	△	님	△	님	자	자	자	도	다	에	다		자	서	아	

고딕으로 표시된 부분은 선소리와 후소리가 겹쳐져서 가창되는 것임.

새드리는 노래 ♫ = 76																				
배	물	애	요	새	오	불	요	새	오	요	부	요	새	(선)						
고	주	물	새	딸	시	쌍	새	딸	시	왕	영	새	딸							
픈	어	를	를	라	는	한	를	라	는		국	를	라							
새	드	새	드	웁	질	영	드	웁	질	선	처	드	웁							
라	리	라	리	네	에	신	리	네	에	왕	서	리	네							
도	고		자	다	도		자		도			자								
배	물	도	애	요	새	오	님	불	요	다	새	오	님	요	님	요	요	다	새	(후)
고	주		물	새	딸	시	네	쌍	새		딸	시	네	왕	네	왕	새		딸	
픈	어		른	를	라	는		한	를		라	는					를		라	
새	도		새	드	웁	질		영	드		웁	질		선		선	도		웁	
라	리		라	리	네	에		신	리		네	에				왕	리		네	
도	고	△	도	자	다.	도	△		자	△	다.	도	△	왕	△		자	△	다.	

새드리는 노래 ♫ = 76																			
다	애	징	문	서	글	문	하	어	요	저	훔	주	쌀	(전)					
큰	열	역	수	수	세	왕	늘	기	새	몰	쩍	어	주						
지	이	을	일	왕	상	성	을	야	야	일		라	어						
불	난	못	도	딸	저	문	옥	실	불	아	훔	훔	드						
소		가	걸	애	칭	도	하	어	초	는	쩍		리						
	다	난		기	대		는		사	고		쩍							
령	다	애	징	영	문	서	글	령	문	하	영	어	요	저	훔	주	자	쉴	(후)
	큰	열	역		수	수	세		왕	늘		기	새	몰		어	주		
	지	이	을		일	왕	상		성	을		야	야	일	쩍	라	어		
	불	난	못		도	딸	저		문	옥		실	불	아	훔	훔	드		
	소		가		걸	애	칭		도	하		어	초	는	쩍		리		
△	령	다	난	△	영	기	대	△	령	는	△	영	사	고	△	쩍	△	자	

새 드리는 노래 ♫ = 76												박			
나	귀	드	주	쫄	배	물	애	가	입	눈	불	(선)			
력	양	리	어	주	고	주	물	슴	에	으	타				
을		다	라	어	픈	영	른	에	는	로	도				
막	불	남	훔	드	새	드	새	상	악	곰	먹				
읍		은		리	라	리	라	열	심	방	는				
써	라		쩍	자	도	고		새	새	새	것				
나	두	귀	새	도	주	쫄	배	물	도	애	입	구	눈	불	(후)
력	번	양	라	리	어	주	고	주		물	에	으	으	타	
을	째	불		다	라	어	픈	영		른	는	로	로	도	
막	△	라		남	훔	도	새	도		새	악	호	곰	먹	
읍				은		리	라	리		라	심	룽	방	는	
써			△	것	쩍	자	도	고	△	도	새	새	새	것	

<연물 4-3> 새드림

자신석(↓ = 180)										
북				설쇄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1
					두					
		구당			당			굉		2
					번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굉	3
					두					
	당	구당	당		당			굉	굉	4
두루루					번					
5	4,9 13	2-3	1	46	1-45	46	4-44	2,3,45	1	순서
▶ 설쇄가 먼저 연물치기를 시작하고 대영과 북이 같이 합류된다. 북은 기본 박만 짚어준다. 마치순 심방과 소미 1명이 제장에 앉아 있는 해녀 및 신앙민들의 머리와 어깨를 신칼로 누르고 다닌 뒤 제장 앞에서 신칼점을 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 징

자진석(↓ = 180)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두				
	당	당		구	당	당		2
				두				
				구				
	구당	구당	구당	두	구당	구당		3
				구				
				두	두			
		당		구	구			4
				두	두			
	두루루			구	구		두루루	
46	45	40-44	30	18,20 22,25 33-35 37	17,19 21,24 32,36	15-16 23,31 38-39	6-8 10-12 25-29	순서
마치순 신방의 신칼점이 끝남과 동시에 제장에 앉았던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정태진 심방이 제장으로 나와 오리정 신청궐 사설을 낭창한다.								춤 동작 및 연 물 치 기 특 징

장구 장단은 새드리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나타나나 북의 타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선소리를 약하게 치거나 북의 윗부분 변죽을 치는 경우 둘째, 선소리를 크게 치고 후소리는 북의 윗부분 변죽을 치는 경우 셋째, 북이 엇붙임으로 강하게 이어치는 경우가 그것이다.

마. 오리정 신청곡

신들의 오는 길에 사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치워 닦은 후 신들을 청하여 흥겹게 놀리는 재차인 오리정 신청곡은 몇 개의 짧은 사설 낭창과 연물로 이어져 있으며 심방은 제장에 서서 별다른 동작없이 사설을 낭창한다.

<악보 5-1> 오리정 신청곡(새는 날날이 드렸었는데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빠르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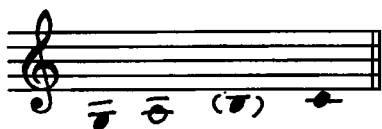




오리정 신청케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5-1)

심방은 제장 가운데어 서서 아무런 동작없이 사설을 낭창한다.

1) 구성음



2) 선율

대부분의 사설이 '라'를 중심으로 낭창되어지고, '라'를 중심으로 2·3도 상·하행 하는 선율이 나타나며 사설이 마무리되어지는 곳에서 3도 위의 '도'로 조금 높게 사설 낭창을 시작하며, 마지막 부분은 말하듯이 사설을 엮어 낭창한 뒤 끝음절은 길게 빼어 올려주며 이와 동시에 연물치기가 이어진다.

<연물 5-1> 오리정 신청괘

자신중판 → 자진석 (↓ = 132~190)										
북				설췌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괴	굉	1
				두	두	두		낭		
		당	구당	당	당	당		들	굉	2
				번	번	번		랑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두				
		구	구당		당	당			굉	4
	두	두								
	구	구			번	번				
8	5-7 13 16-18 23-25 31-33 42 47 54-56 61-63 69 75-76 82-84 90-92	2-4 9-11 15 21-22 28-29 40-41 46,51 53 67-68 74	1	105	2-104	1	5-42 44-60 64-80 85-98	3-4 84	1~2 43 61-63 81-83 99-104	순서
▶ 자신중판 연물치기를 계속하다가 연물치기 마지막 부분 (99~104번)에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서 자진석 연물치기를 잠깐 하고 다음 사설로 들어간다. 정태진 심방은 신칼을 양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요왕질 끝까지 걸어가서 “ 오리정 신청괘로.....” 하는 대사를 읊는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자진중판 → 자진석(↓ = 132 ~190)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두				두			
	구	당	당	당	구	당		2
	두				두			
	구				구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두	구당		3
					구			
	두		두		두			
	구		구	당	구			4
	두		두		두			
	구	두루루	구		구			
105	71,84 86 93	45,98	44,72 85,87 94	34-36 48-50 77-80 96-97 100-104	30,43 57	14,20 27,37 52 59-60 70,73 81 88-89 95,99	12	순서
또한 소미가 준비한 쌀그릇의 쌀을 대나무 주걱을 이용하여 요왕질 끝의 요왕상에 뿌린 후 다시 제장 가운데로 와서 제상을 향해 2번 쌀을 뿌린후 요왕질로 걸어간다. 이러한 연행을 3번 반복하고 난 후 제장 가운데로 와서 신칼점을 치고 난 후 빨라진 연물에 맞춰 정신없이 제자리에서 빙빙 돈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악보 5-2> 오리정 신청곡 (요왕 연맞이로~)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빠르지 않게

요 왕 연 맞 이 로 호

동 경 국 대 왕 님 세 경 국 부 인 님

요 지 요 디 우 이 현 당 현 당

요 왕 처 서 관 장 님

압 송 허 며 어 서 은 다

요 왕 처 서 관 장 이 다

넉 매 물 색 삼 색 물 색 이 다

오리정 신청계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5-2)

<연물 5-2> 오리정 신청계

자진석(↓ = 208 이상)									
북					설채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괴	굉	굉	1
					두	낭			
구당			당	구당	당	들		굉	2
					번	랑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구당	구당		당	구당	당			굉	4
					번				
11	6-8 10 56-57	5,9 12,15 23,27 38,43 50 61	2-4 13-14	1	1-62	6,16 23,25	4-5 7-15 17-22 24 26-47 57-61	1-3 48-56	순서
신칼을 들고 급하게 뛰어 요왕질로 간 후 바닥에서 신칼점을 친다. 그리고 난 후 신칼은 오른쪽 어깨 옷 사이에 끼운채로 손에는 오색천이 매달린 댕가지(감상기)를 들고 “어, 어”하는 고함을 치면서 제장으로 뛰어 온 다음 감상기를 여전히 흔들면서 제장 둘레를 두발을 모은 상태로 펄쩍펄쩍 뛰면서 두바퀴 돈다. 그 후에 연물이 점차 더 빨리지면서 심방은 제장 가운데를 한 발을 고정한 채로 급하게 빙빙 돈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자진석(♩ = 208 이상)				
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두	두		
구당	구	구	당	2
	당	당		
구당	구	구당	구당	3
	당			
	구			4
	당			
62	19,21 25-26 28-37 46-49 54-55 58-59	17-18 20,22 24, 39-42 44-45 51-53 60	16	순서
연물이 점점 더 빨라지면 심방은 감상기를 버리고 바닥에 앉아 신칼 점을 친다. 그리고 나서 일어 선 후 다음 사설로 이어간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1) 구성음



2) 선율

‘레’에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어지며, 3도 상행하여 ‘파’로 변화를 주고 있으며, ‘레’에서 2도, 3도 하행하는 ‘레 -도 -라’진행이 나타난다.

마지막 사설의 마무리는 말하듯이 엮어서 끝을 부드럽게 끌어 올린다.

<악보 5-3> 오리정 신청곡 (어 어~ 허, 요왕국 대왕님~)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요 왕 황 제 국 님 이 - - 삼 색 - 물 색 으 로

종 던 앞 판 저 삼 판 으 로 - 오 리 정 - -

신 매 와 - 있 습 - 네 - - 다 - -

동 해 안 의 청 요 왕 - 서 해 안 의 백 요 왕 - -

남 해 안 의 적 요 왕 북 의 흑 요 왕 -

중 앙 황 실 요 왕 이 라 오 리 정 신 청 께 로

오리정 신청궤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5-3)

1) 구성음

<연물 5-3> 오리정 신청케

자신중판 (↓ = 122~124)										
북				설췌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괴	굉	굉	1
				두	두		낭			
	당	구당	구당	당	당	당	들		굉	2
				번	번	번	랑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구당	당	당	당			굉	4
두	두	두								
구	구	구			번	번				
6-9 19	3-5 12-13 16-18	2	1	32	2-31	1	23	3-19 24-32	1-2 20-22	순서
심방은 신칼을 양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요왕질 끝까지 걸어가서 소미가 주는 쌀그릇을 받아들고 신칼로 쌀을 떠서 요왕상을 향해 뿌리면서 “오리정 신청케웨다.~”하고 이야기를 한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자신중판 (↓ = 122~124)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	구당	구당	1
				당			
	두						
	구	당	당	구당	당		2
	두						
	구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3
		두		두			
		구	당	구			4
		두		두			
		구		구			
32	26-27 31	24-25 28-29	20-23	14	11,15 30	10	순서
심방은 오른손은 어깨 위로 들고 왼손은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 놓은 채로 제장 가운데로 간다. 요왕질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상을 향해 쌀을 2번 뿌린 후 다음 사설로 들어간다. ▶대영이 연물치기의 시작을 알리면 북과 설쇄가 합류하여 연물치기를 한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악보 5-4> 오리정 신청곡 (요왕 영신 님네~)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요 왕 영 신 님 네 - - -

오 리 정 - 신 메 와 - 습 네 다 -

산 지 - 부 두 - - -

성 방 - 이 - - - 상 선 중 선 - 하 선 - -

이 물 고 물 받 던 - - 진 주 - 선 왕 님 네 - 해

어 - - - 어 느 - - - 모 릇 배 -

선 왕 님 이 나 화 물 선 선 왕 님 네 -



오리정 신청케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5-4)

<악보 5-5> 오리정 신청케 (오리정 신청케 연나겨 선상님도~)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빠르지 않게



오리정 신청케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5-5)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 되어지다가, 2도 하행하여 ‘도’로 진행하거나, 3도 하행하여 ‘레- 도- 라’로 진행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또한 ‘도’에서 3도 상·하행하는 선율 및, 4도 위의 ‘솔’음이 나와서 변화를 주기도 한다.

오리정 신청곡의 사설은 몇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설의 길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심방은 모든 사설을 제장 가운데에 서서 낭창하며 사설이 끝나면 요왕질을 향해 걸어가서 쌀을 뿌리거나, 신칼점을 친 후 다시 제장 가운데로 와서 제상을 향해 똑같이 쌀을 뿌리고 신칼점을 치는 행위를 한다. 연물치기는 대영이 시작을 알리면 북과 설쇄가 합류하여 연물치기를 하나, 마지막 단락은 설쇄가 먼저 연물치기를 알리고 북과 대영이 합류하여 연물치기를 한다. 대영은 연물치기 처음에는 4박을 모두 짚어 주다가 박이 안정 되면 2박에 1번씩 치며 북은 처음에 잔 가락을 넣지 않고 박만 짚어주는 감장연물을 치다가 잔가락을 넣어 연주한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다시 잔가락 없이 박을 짚어 주며 연물치기를 마무리한다.

<연물 5-4> 오리정 신청괘

자신중판 (↓ = 122~124)									
북				설괘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1
					두				
		당	구당		당	굉		굉	2
					번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구	구	구당		당	굉		굉	4
	두	두							
	구	구			번				
7,13 27	3-6 9-12 23-26	2,28	1	30	1-29	19-22	3-18 23-29	1-2	순서
한손에는 쌀이 들어있는 그릇을 들고 다른 손에는 신칼을 든 채로 “오리정 신청괘다”라고 말을 하며 요왕질 입구까지 걸어가서 쌀을 요왕질 입구에 신칼로 한번 떠서 버린다. 그리고 난 후 다시 제장으로 간다. 제장 가운데를 2바퀴 제자리에서 돈 후 제상을 향해 쌀을 2번 뿌리고 앉아서 신칼점을 친다.									춤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자신중판 (↓ = 122~124)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	구당	구당	1
			당			
		두		두		
	당	구	구당	구	당	2
		당		두		
				구		
	구당	구당	구당	두	구당	3
				구		
		두	두	두		
	당	구	구	구		4
		당	두	두		
			구	구		
30	19-22	17	16	15	8,14 29	순서
▶ 설쇄가 연물치기의 시작을 알리면 대영과이 북이 합류하여 연물치기를 한다. 북이 ‘두-구당’을 치는 것은 ‘두구당’을 치는 것과 소리 구분이 없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연물 5-5> 오리정 신청괘

자진중판→ 늦은석 (↓ = 126 →60)									
북				설췌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1
				두	두				
		당	구당	당	당			굉	2
두루루									
두				번	번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3
당					두				
			구당		당			굉	4
두					번				
4	3	2	1	31	1-30	3-30	2	1	순서
▶ 자진중판 연물치기(1~2번)는 2장단으로 짧게 이루어지고 바로 늦은석 연물치기(3~31번)로 이어진다. 심방은 요왕질로 걸어가서 요왕질 입구에서부터 요왕질 끝까지 늦은석 연물치기에 맞춰 사설을 읊으며 쌀을 신칼로 바닥에 뿌리며 걸어간다. 사설내용 : “요왕 연맞이로 오리정 신청괘로, 옛날 선상님도, 이이고 무형문화재 선상님, 문화재 회원일동, 몸받은 조상님네도, 오리정 신청입네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자신중환→ 늦은석 (↓ = 126 →60)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구당					2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두	두	두	두	두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3
		구당		당	당	4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두루루	
	두	두	두	두	두	
31	25,30	24,29	12-14 15-19 26-28	9-11 15 20-23	5-8	순서
▶ 늦은석 연물치기시 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굴러치는 기법으로 구사한다. 요왕질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제장 가운데로 와서 자리에 앉은 후 신칼점을 치고 바로 다음 사설로 이어간다.						춤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요왕맛이 굿의 초감제는 신을 청하는 청신과정으로서 새드리는 노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반주 낭창 후 연물치기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포도업침, 날·국 섬김, 연유닭음, 군문열기, 새드림, 오리정 신청께까지 쉬는 부분 없이 계속 이어져서 초감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베포도업침, 날·국 섬김, 연유닭음 부분은 무반주 사설 낭창이 위주가 되어 긴 사설을 낭창한 후에 연물치기가 사설과 사설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군문열기에서는 제장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연물치기를 하고 무반주 무가보다는 변화 무쌍한 연물치기에 맞춰 심방의 격렬한 춤이 군문열기를 이끌어나간다. 군문열기가 끝난 후에는 정태진 심방에서 마치순 심방으로 바뀌면서 새드리는 노래 가창이 이어지고 다시 정태진 심방에 의한 오리정 신청께로 초감제가 마무리 된다. 초감제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7 > 초 감 제

제차	행위	사용악기	비고
1. 초감제			
① 베포도업침	무반주 낭창·춤	북·설쇠·대영	도랑춤, 손바닥춤, 감상기춤, 신칼점
② 날국섬김	무반주 낭창·연물	북·설쇠·대영	
③ 연유닭음	무반주 낭창·춤	북·설쇠·대영	
④ 군문열림	무반주 낭창·춤	북·설쇠·대영	
⑤ 새드림	무반주 낭창 가창 (새드리는 노래)	북·설쇠·대영 북·장구	(선소리·후소리)
⑥ 오리정 신청께	무반주 낭창·연물	북·설쇠·대영	

한편 초감제에 사용된 음의 구성을 보면 ‘레~솔’의 4도를 중심으로 위로 ‘라’까지 5도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레’를 중심으로 ‘도,미’음이 삽입되어 2·3도 상·하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또한 ‘라~레’의 4도가 중심이 되어 사이에 ‘도,미’ 음이 삽입되어 가락이 움직이는 재차도 보인다.

즉 초감제에 나타나는 출현음 및 음조식은 '레'음을 중심으로 4도 위의 음인 '솔'과 4도 아래 음인 '라'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사이에 '도,미'음이 삽입되어 2·3도 상·하행하는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

사설 낭창의 마지막은 말하듯이 사설을 엮어서 낭창한 뒤에 끝음절을 길게 빼어 위나 아래로 소리내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마지막 음절의 낭창과 동시에 연물치기가 이어진다.

춤 반주음악으로서 연물은 대영, 설쇄, 북이 연물치기를 하는데 사설이 끝나면 대부분 대영이 먼저 첫박을 치면서 연물치기를 시작하고 북과 설쇄가 이어 합류되는 경우가 보통으로 나타난다. 대영과 설쇄는 주로 박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반하여 북은 다양한 장단꼴로 춤의 흐름을 나타내 준다. 대영은 주로 연물치기 처음에는 4박을 모두 다 치다가(2~3장단) 1, 3박을 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1, 2, 3박을 치는 형태도 종종 보이나 이는 1, 2박을 치는 장단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설쇄는 연물치기 처음에 첫박을 놓쳐 2박이나 3박부터 들어가거나 엇붙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시종일관 '열-두, 당-변, 열-두, 당-변'의 형태로 연물치기를 한다.

북은 연물치기 처음에는 징처럼 장식을 넣지 않고 박만 짚어 주다가 박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양한 장단꼴을 구사하며 연주하는데 일정한 형태를 보인다.

춤 반주 음악에 있어서 가장 두들어지는 것이 북의 타법인데 북의 오른쪽 북면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각각 채를 잡아 오른손은 북면의 윗쪽을 윗채로 치고 왼손은 북면의 아래쪽 즉 알채를 치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번갈아 가며 강약을 넣어 연주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법이 알채를 가볍고 빠르게 쳐줌과 동시에 위채로 이어지는(구당) 장구의 기덕과 같은 주법을 각 장단의 처음에 혹은 연물치기의 처음 시작에 많이 사용하고 이어서 알채와 윗채를 계속 연결하여 치는(구당 — —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주법에 강약을 넣는다든지 중간 박을 생략하고 친다든지 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초감제의 연물치기는 늦은석으로 시작하여 늦은석으로 끝나는데 군문열기 부분은 연물치기를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하고 심방의 춤이 격렬할뿐만 아니라 연물치기의 장단변화 특히 북의 타법이 가장 두들어지게 나타난다.

2. 요왕질침

요왕질침은 요왕길을 치워 닦는 재차로서 심방이 신칼을 들고 일어서서 요왕질을 닦는 사설을 무반주로 낭창한다.

각각의 단락이 끝날 때에는 초감제에서와 같이 사설의 마지막 음절을 말하듯이 빨리 몰아서 낭창한 뒤 마지막 음절을 길게 쭉 빼어 올리면서 노래하고 이와 동시에 북, 설채, 대영이 $J = 138$ 자진 중판 연물치기를 한다. 그 동안 심방은 읊은 사설의 내용에 맞는 행위를 연극적인 춤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한 단락, 한 단락 요왕질치기 사설을 하고 자진 중판 연물에 맞춰 심방이 춤을 추는 행위로 이 재차가 진행된다.

가. 요왕문 돌아봄

<악보 6-1> 요왕문 돌아봄 (요왕 연맞이로 ~호)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빠르지 않게



신 메 와 습 네 다

니 가 들 아 갑 네 다

제 가 들 아 갑 네 다 천 하 금 공 선

서 룬 원 정 신 관 수 며 허

요 왕 수 중 고 운 질 이 어 찌 되 며 허

을 라 읊 네 다 요 왕 태 저 질

요 왕 황 저 질 아 끈 늻 보 한 듻 짝 질

어 찌 되 며 을 라 읊 네 다 하

요 왕 수 중 고 운 질 도 들 아 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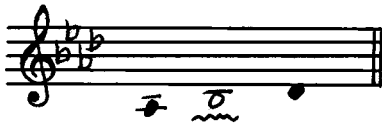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1)

<연물 6-1> 요왕문 돌아봄

자진중판 (↓ = 138)											
북						설쇄		대영			박
구읍	구읍	구읍	구읍	구읍	구읍	구읍	구읍	구읍	구읍	구읍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괴	굉	1
						두	두		낭		
		당	당	당		당	당		들	굉	2
						번	번		랑		
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구		구	당	당		당			굉	4
	당		당								
			두				번				
10,15	6-9	4	3,5 13-14	2 11-12	1	14	1-13	4-9 11-13	3,10	1-2	순서
신칼을 양쪽 어깨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요왕질 중간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제장 가운데로 나온다. ▶ 대영과 설쇄가 연물치기를 시작하고 북이 2박 정도 늦게 들어가서 연물치기를 하는데 ‘구당’ 앞에 ‘두’를 약하게 쳐서 잇는 ‘두구당’을 주범이 많이 나타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 징

심방은 제장 가운데에 선 채로 사설을 낭창한다.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며 가끔씩 ‘레’에서 2도 하행하여 ‘도’로 진행한다거나 ‘레’에서 3도 상행하여 ‘파’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사설의 마지막 부분은 말하듯이 쉬어 길게 빼어 소리낸뒤 마지막 음절을 아래로 내려 소리낸다. 이와 동시에 연물치기가 이루어진다.

나. 언월도로 베기

<악보 6-2> 언월도로 베기(요왕질 돌앙 보나네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무성 무성 허 혼 질 이 로 다 — — — —

하늘 이 속 국 헌 질 이 요 땅 이 고 득 헌 질 이 로 다 — —

아 끈 물 망 질 이 땡 천 는 다 —

한 물 망 질 이 땡 천 허 었 구 나 — —

아 이 고 요 질 은 배 령 보 난 연 날 선 상 —

연 날 왕 손 입 네 다 — 비 다 남 은 질 이 로 다 —

성 은 — 종 씨 — 이 해 갑 신 인 생 —

요 질 비 저 닦 으 저 영 험 네 다 신 실 맞 는 다 — —

그 리 말 고 — 옥 세 경 — — — 언 월 도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2)

심방은 요왕질 입구에 서서 제장에 모인 사람과 제상을 바라보며 사설을 낭창한다.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며 가끔씩 ‘레’음에서 2도 하행하여 ‘도’로 진행하거나 2도 상행하여 ‘미’로 진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마지막 사설은 말하듯이 엮어서 사설을 낭창하다가 마지막 음절은 길게 빼어 소리낸 후 끌어 올린다.

<연물 6-2> 언월도로 베기

자진중판 (↓ = 138)											
북						설쇄			대 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1
		두					두	두			
		구	당	당			당	당		굉	2
		두									
		구					번	번			
구당		두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3
		구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당	당		당	당		굉	4
	두	두	두								
	구	구	구				번	번			
10,17	6-9 13-16	4-5 12,18	3	2	1	21	2-20	1	3-21	1-2	순서
심방은 신칼을 들고 요왕질 끝까지 걸어가서 요왕질에 나 있는 해초들을 신칼로 베는 흉내를 내고 나서 요왕질 입구에서 신칼점을 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자진중판 (↓ = 138)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두		
		구	당	2
		두		
		구		
구당		구당	구당	3
		두		
당		구		4
		두		
	두루루	구		
21	20	19	11	순서
▶ 대영이 연물치기의 시작을 알리고 설쇄와 북이 합류하여 연물치기를 한다.				춤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다. 작대기로 치우기

<악보 6-3> 작대기로 치우기(어 어~허, 아끈 물망질 혼 물망질)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어 — — — — 허

아 끈 물 망 질 — — 혼 물 망 — 질 — — —

아 끈 감 태 질 한 감 태 질 동 서 러 래

비 었 더 니 마 는 어 디 에 — 아 니 비 었 다 면 — 어 — —

일 만 — 어 부 해 녀 델 — — 땡 기 는 질 에 — — — —

선 관 질 을 누 가 불 질 — — 요 질 비 나 — — — 안

선 - 관 절 이 딱 고 청 랑 열 듯 허 여 은 다

요 절 - 어 짜 허 민 좋 으 리 요 -

그 리 말 고 - - 옥

대 정 심 방 은 - 신 불 암 작 대 기 현 다

무 관 심 방 은 - 선 을 쫓 고 빠 졌 저 은 다

들 공 난 작 대 - 기 들 러 받 으 며 아 끈 감 태 실 포 든 서 래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3)

<연물 6-3> 작대기로 치우기

자진중판 (↓ = 138)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괴		1
						두	두		낭		
당	당			당	구당	당	당		들	굉	2
						번	번		랑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두				
구			구	구	당		당			굉	4
두			두	두							
구			구	구			번				
9,23	8	7,15 21	4-6 10 17-20	2-3 11	1	25	1-24	3-24	2	1	순서
신칼을 켜 채로 소미가 갖다 준 대나무 작대기를 동시에 들고 요왕질로 가서 요왕질 사이 사이에 있는 해초를 작대기로 들어 올려 치우는 시늉을 한 후 요왕질 입구에서 신칼점을 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자진중판 (↓ = 138)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1
		두		
	당	구	당	2
		당		
	구당	구당	구당	3
		두	두	
		구		4
		당	두	
			구	
24	16,22	13-14	12	순서
▶ 설쇄가 연물치기의 시작을 알리고 대영과 북이 합류하여 연물치기를 한다. ▶ 북은 ‘두구당’을 치는 경우와, ‘구당-두구두-구두구-두구두’를 치는 경우가 있다.				춤 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심방은 요왕질 입구에 서서 신칼을 든 채로 제장에 모인 사람과 제상을 둘러보며 사설을 낭창한다.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며 ‘레’에서 2도 하행하여 ‘도’로 진행하는 것 혹은 ‘도’를 경과하여 ‘라’로 4도 하행 진행하는 것이 종종 나타난다. ‘라, 도’도 골고루 사용되며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음을 높여 사설을 낭창하여 마무리를 짓고 있다.

마지막 사설은 말하듯이 엮어서 사설을 낭창하다가 마지막 음절은 길게 빼어 소리낸 후 끌어내린다.

라. 은비 따비로 파기

<악보 6-4> 은비따비로 파기(요질을 동서 러래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요 질 을 동 서 러 래 치 와 말 랐 더 니

침 는 디 는 너 무 치 와 불 끄 - -

아 니 침 는 디 는 아 니 치 와 부 난 - -

이 질 도 무 성 무 성 현 질 이 되 어 진 다 -

요 질 어 켜 허 민 좋 으 리 요 - 호

연 날 열 적 에 맹 - 두 - 암 - 김 - 화 수 집 이

그 아 무 게 죽 되 어 빈 추 록 고 득 여 진 길 이 되 어 진 다 - -

요 질 - 무 성 무 성 고 운 질 이 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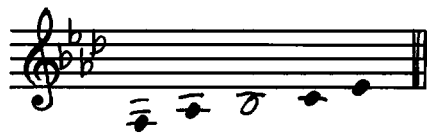
아 끈 물 망 한 물 망 감 태 질 에 얹 어 지 고 털 어 진 길 이 되 어 진 다



연몰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몰 6-4)

심방은 오른 손에 신칼을 들고 왼손에 쥔 대나무 작대기를 왼쪽 어깨 위에 올려 놓은 채로 요왕질 입구에 서서 사설을 낭창한다.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며 ‘레’에서 2도 하행하여 ‘도’로 진행하는 것 혹은 ‘도’를 경과하여 ‘레-도-라’로 4도 하행 진행하는 것이 종종 나타난다.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의 ‘작대기로 치우기’에서 처럼 음을 높여 사설을 낭창하여 마무리를 짓고 있다. 마지막 사설은 말하듯이 엮어서 사설을 낭창하다가 마지막 음절은 길게 빼어 소리낸 후 끌어올린다.

<연물 6-4> 은비 따비로 파기

자진중판 (↓ = 138)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1
							두					
당			당	당			당	당			굉	2
							번	번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3
두		두		두			두	두				
구				구	당		당	당			굉	4
두		두		두								
구		구		구			번	번				
9,16	8	5-7 10-11 17-20	3 14-15	2,4 8	1	22	2-21	1	22	3-21	1-2	순서
심방은 신칼을 목 뒤의 옷깃에 꽂아 놓고 요왕질로 가서 한손에는 요령을 들고 위 아래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대나무 작대기를 들어서 발 위에 얹어 땅을 파는 시늉을 한다. 어어 요왕질 입구에서 신칼점을 친다.												춤 동작 및 연 물 치 기 특 징

자진중판 (↓ = 138)						
요령			북			박
부호	부호	부호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	구당	1
				당		
					두	
				당	구	2
					두	
				두	구	
}}		}}		구당	구당	3
}}		}}				
				두	두	
	}}			구	구	4
	}}			두	당	
				구		
16	12	9	22	13	12,21	순서
▶ 대영이 연물치기의 시작을 알리고 설 쉐와 북이 합류하여 연물치기를 한다. 심방이 요령을 들고 혼든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 징

마. 돌 치우기

<악보 6-5> 돌 치우기 (어 어~허, 동서러래 파 일렀더니마는)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어 - - - 허

동 서 러 래 파 일 렀 더 니 마 는 어 테 -

파 는 던 너 무 파 불 고 - - 옥

아 니 판 던 아 니 파 부 난 -

아 이 고 이 것 도 무 섭 고 무 섭 거 운 -

요 왕 질 이 되 어 지 어 어 찌 허 민 좋 으 리 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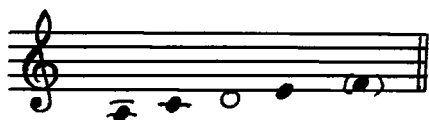
그 러 말 고 - - 옥



연몰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몰 6-5)

심방은 제장 가운데에 서서 제장 둘레에 앉아있는 신앙민을 둘러 보면서 사설을 낭창한다.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며, ‘레’에서 2도 하행하여 ‘도’로 진행하는 것 혹은 ‘도’를 경과하여 ‘레-도-라’로 4도 하행 진행하는 것이 종종 나타난다. 단락의 마지막 부분, 첫 시작 사설은 음을 높여 낭창한다. 마지막 사설은 말하듯이 엮어서 사설을 낭창하다가 마지막 음절은 길게 빼어 소리낸 후 끌어 올린다.

<연물 6-5> 돌 치우기

자진중판 (↓ = 138)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괴	굉	1
						두	두			낭		
		당	당	당		당	당			들	굉	2
						번	번			랑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굉	3
	두	두	두			두	두	두				4
	구	구	구	당	구당	당	당	당			굉	
	두	두	두									
	구	구	구				번	번				
8,12 22	5-7 14-16 20-21	4,17	3,24	2	1	27	2-26	1	4-27	3	1-2	순서
해녀 10여명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요왕질로 걸어가서 소미가 건네주는 돌을 두 손을 뒤로하여 하나씩 받아 들고는 돌들을 무겁게 지고 가는 시늉을 하며 원을 그리며 제장을 한 바퀴 돈 후 자리로 들어간다.												춤 동작 및 연 물 치 기 특 징

자진중판 (↓ = 138)				
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	구당	1
		당		
			두	
	당	당	구	2
			두	
			구	
	구당	구당	구당	3
		두	두	
		구	구	4
		두	두	
		구	구	
27	11,13 23	10,19, 26	9,18 25	순서
▶ 대영이 연물치기의 시작을 알리고 설쇄와 북이 합류하여 연물치기를 한다.				춤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바. 발로 고르기

<악보 6-6> 발로 고르기 (어 어~허, 큰 돌 작은돌)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어 어~허

큰 돌 작은 돌 — 마 새 린 동 동 질 은 —

념 작 한 궁 등 이 틀 아 상 문 딱 치 왔 구 나 부 나 — — — — —

칩 는 던 — 너 무 치 와 불 고 — — 옥

아 니 칩 는 던 — 아 니 치 와 부 난 — —

아 이 고 높 은 던 — 야 추 와 준 다 —

야 춘 — 던 높 아 지 영 못 쓸 듯 현 다 —

그 리 말 이 질 어 쩌 허 민 좋 으 리 요

성 문 모 살 모 아 논 디 가 오 리 드 러 눈 것 같 이

우 미 옥 조 미 옥 허 여 은 다

강 병 — 영 령 — 대 진 구 려 — 먹 듯 모 릇 대 기 별 로 불 라 불 라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6)

심방은 요왕질 입구에 서서 신앙민들을 돌아가며 쳐다보며 사설을 낭창한다.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되며 ‘레’음에서 2도 하행하여 ‘도’로 진행하는 것 혹은 ‘도’를 경과하여 ‘레-도-라’로 4도 하행 진행하는 것이 종종 나타난다. 단락의 마지막 부분, 첫 시작 사설은 음을 높여 낭창하며 마지막 음절은 길게 빼어 소리낸 후 끌어올린다.

<연물 6-6> 발로 고르기

자진중판 (↓ = 138)													
북								설췌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1
	당												
		두							두				
당	당	구			당	당	구당		당			굉	2
		두											
		구							번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3
	두	두		두	두	두			두				
구당	두	구		구	구	구	구당		당			굉	4
	구	두		두	두	두							
	두	구		구	구	구			번				
17	14,16	13,15	8	5-7 11-12	3,4 10	2,9	1	17	1-16	17	3-16	1-2	순서
심방은 두손을 허리 뒤로 하여 신칼을 가로로 잡은 다음 요왕질로 가서 요왕질을 두 발로 단단하게 밟는 시늉을 하고 요왕질 입구에서 신칼점을 친다. 신칼점이 잘 나올때까지 점을 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미레깃대로 고르기, 이슬다리 놓기, 마른다리 놓기, 나비 다리 놓기, 요왕 다리 놓기는 사설낭창에 있어 위의 부분과 별다른 특징이 없이 유사하며 또한 사설 낭창 후 연물치기가 짧게 이루어지므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 미레깃대로 고르기

<악보 6-7> 미레깃대로 고르기(어 ~허, 땡균허야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어 예 - 헤

땡 균 허 야 불 라 - 더 니 마 는 어 테 - -

불 른 던 너 무 - 불 라 불 고 - - 옥

아 니 불 르 는 던 아 니 불 라 부 난

요 질 도 모 두 실 듯 허 여 진 다 - - 하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7)

아. 이슬다리 놓기

<악보 6-8> 이슬다리 놓기(어 ~, 동서러래 썰어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씨는던 너무 셀 어불곡 아니 - 씨는던 - 아니 셀 어부 난 -

요 질 도 못 셀 듯 해 여 진 다 - - -

어 켜 하 면 좋 으 리 요 - - 그리 말 고 - - 옥

요 왕 - 왕 제 국 - - 요 왕 태 저 동 경 국 대 왕

부 인 님 이 어 서 들 저 - -

가 시 는 데 눈 에 가 시 들 듯 해 여 진 다

그 리 말 고 - - 옥 아 끈 문 들 여 오 자 허 는 구 나 앞 문 지 밀

이 슬 이 슬 - 청 이 슬 땡 기 는 절 다 리 놓 자 -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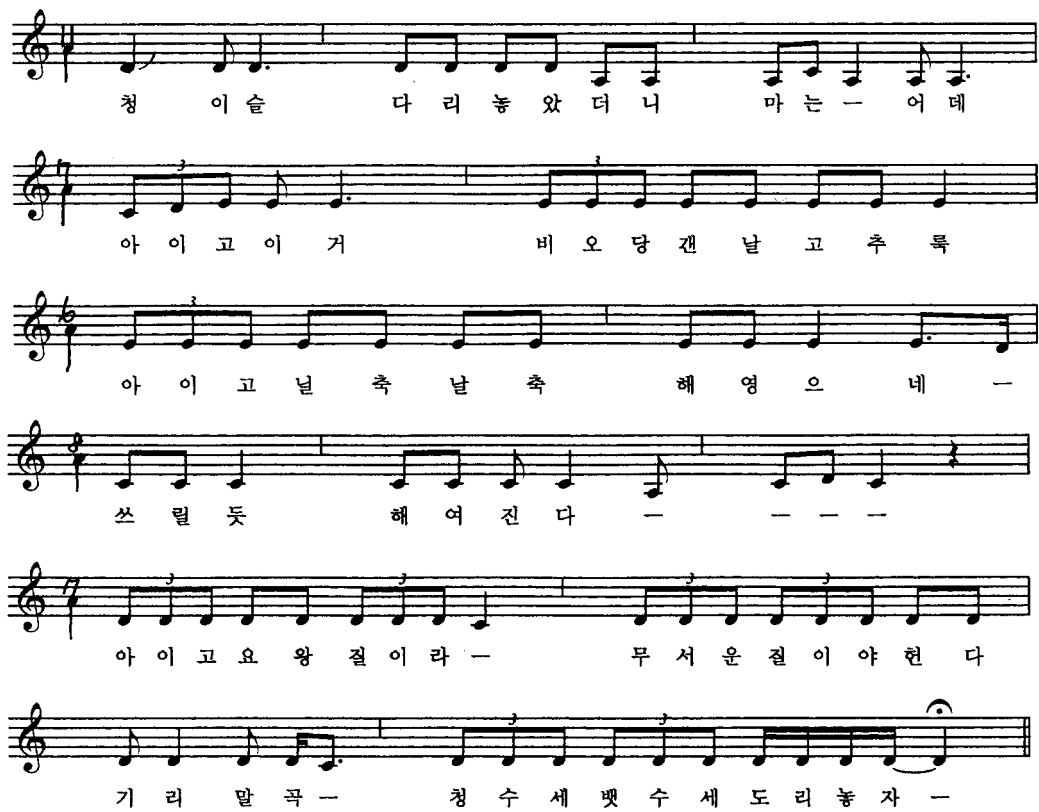
자. 마른다리 놓기

<악보 6-9> 마른다리 놓기(청 이슬 다리 놓았더니마는 어데)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게



청 이슬 다리 놓 았 더 니 마 는 - 어 데

아 이 고 이 거 비 오 당 겐 날 고 추 록

아 이 고 닐 축 날 축 해 영 으 네 -

쓰 릴 듯 해 여 진 다 - - -

아 이 고 요 왕 질 이 라 - 무 서 운 질 이 야 현 다

기 리 말 꼭 - 청 수 세 뱃 수 세 도 리 놓 자 -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9)

차. 나비다리 놓기

<악보 6-10> 나비다리 놓기 (청수세, 백수세 다리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게

청수세 백수세
다 리 놓 았 더 니 마 는 어 데 - - -
요 질 도 다 리 민 듯 도 아 닌 듯 허 영
지 향 울 렷 실 듯 허 영 온 다 - 요 질 어 찌 하 면 좋 으 리 요 -
그 리 - 말 꼭 청 나 비 백 나 비 다 리 놓 았 구 나 -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10)

카) 요왕다리 놓기

<악보 6-11> 요왕다리 놓기 (청나비 다리노난 그리말곡 ~)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조금 빠르듯이

청 나 비 - - - 다 리 노 난 그 리 말 곡 - -

요 왕 황 저 국 다 리 요 왕 체 서 국 다 리 도 놓 아 볼 자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11)

<연물 6-7> 미렛깃대로 고르기

자진중판 (↓ = 138)											
북							설췌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1
							두	두			
			당	당	당	구당	당	당		굉	2
							번	번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3
		두	두		두			두			
		구	구		구	구당		당		굉	4
		두	두		두						
		구	구		구			번			
10	8	5-7	4	3	2,9	1	10	1-9	3-9	1-2	순서
심방은 두 개의 신칼을 모두 오른 손에 잡고 요왕질 입구에서부터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 치우는 시늉을 짧게 하며 요왕질 끝까지 갔다온다. ▶ 대영과 설췌가 연물치기를 동시에 시작하며 마무리 장단은 설췌와 북이 한다.											춤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연물 6-8> 이슬다리 놓기

자진중판 (↓=138)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열	열	굉	1
				두		
당	당	구당	당	당		2
				변		
	구당	구당		열	굉	3
				두		
	당	구당		당		4
				변		
4	2-3	1	4	1-3	1-3	순서
심방은 아무런 동작없이 사설을 낭창했던 요왕질 입구에 가만히 서 있다. (연물치기가 아주 짧음) ▶ 대영과 설채가 연물치기를 동시에 시작하며 마무리 장단은 설채와 북이 한다.						춤 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연물 6-9> 마른다리 놓기

자진중판 (↓=138)						
북			설쇄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열	열	굉	1
				두		
	당	구당		당		2
				변		
	구당	구당		열	굉	3
				두		
	당	구당		당		4
				변		
3	2	1	3	1-2	1-2	순서
연물치기가 짧게 진행되는 동안 심방은 아무런 동작없이 사설을 낭창했던 요왕질 입구에 가만히 서 있다. (연물치기가 아주 짧음) ▶ 대영과 설쇄가 연물치기를 동시에 시작하며 마무리 장단은 설쇄와 북이 한다.						춤 동작 및 연물치기 특징

<연물 6-10> 나비다리 놓기

자진중판 (♩=138)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열	굉	1
	두		
구당	당	굉	2
	번		
구당	열	굉	3
		굉	4
1	1	1	순서
연물치기가 짧게 진행되는 동안 심방은 아무런 동작없이 사설을 낭창했던 요왕질 입구에 가만히 서 있다. 심방은 아무런 동작없이 가만히 서있는데 요왕질에서는 소미들이 짧은 연물치기 시간동안 둘둘 말려진 긴 무명천 두루미를 펴기 시작하며 이는 다음 요왕다리 놓기 사설이 낭창되는 동안 및 그 후의 연물치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된다. ▶ 연물치기가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심방의 사설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각각의 연물이 어긋나면서 연물치기 1장단을 짧게 한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연물 6-11> 요왕다리 놓기

늦은석 (↓=42)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1
		두	두			
구당		당	당			2
	두		변			
	구당		열		굉	3
			두			
			당			4
	두		변			
3	1-2	3	1-2	3	1-2	순서
심방은 가만히 서있고 요왕질에서는 소미들 및 칠머리 당곳 회원들이 요왕질 위에 긴 무명천으로 요왕다리와 차사다리를 2겹으로 길게 깔아 놓는다. 이는 심방이 다음 사설을 낭창할 때에도 계속 된다. ▶ 연물치기가 짧게 늦은석으로 이루어진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올구멍 메우기, 떡다리 놓기, 인정 걸기는 사설 낭창에 있어 위의 부분과 별다른 특징이 없이 유사하며 또한 사설 낭창 후 연물치기가 짧게 이루어지므로 묶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타. 올구멍 메우기

<악보 6-12> 올구멍 메우기 (으~흐, 요왕 차사국 다리 놓아수다)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빠르지 않게

으 - 흐 요 왕 차 사 국 다 리 놓 아 수 다 - - - 하

요 왕 국 대 왕 님 - 도 리 놓 아 수 다

세 경 국 부 인 님 - 요 왕 태 저 -

요 왕 황 저 국 다 리 놓 아 습 네 다 -

요 다 리 노 난 - - 이 도 리 - 인

이 자 손 덜 일 만 — 해 너 어 부 — — —

놓 은 도 립 네 다 — — —

또 여 기 저 — — 는

모 랫 배 선 원 들 놓 은 도 립 네 다 — — —

구 대 고 로 — 는

어 느 — — 화 물 선 —

선 원 들 놓 은 도 립 네 다 — — —

또 이 저 는 — — — 어 느 추 남 배

추 념 기 — — 선 왕 념 네

선 주 덜 놓 은 다 리 가 됩 네 다 — — —

이 다 리 노 난 — —

요 왕 황 저 국 이 어 서 들 겨 어 서 — 들 겨

울 로 감 씨 실 로 가 라 어 서 들 씨 — — — —

그 리 말 고 — 옥 양 쪽 으 로 양 혼 싸 울 려 집 네 다 — —

아 흠 찌 발 은 빠 질 듯 여덟 찌 발 은 아 니 빠 질 듯 허 여 읊 네 다

금 방 — — 머 덜 — — 설 정 — 리

들 러 — — 받 으 며 궁 기 궁 기 를 메 워 라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12)

파. 떡다리 놓기

<악보 6-13> 떡다리 놓기 (궁기 궁기 메왔더니마는)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빠르듯이

궁 기 궁 기 - 메 와 디 - 니 마 는 어 데 - -

행 는 우 의 질 이 땡 천 허 여 진 다 - - - -

아 - - - 요 질 못 셀 듯 해 여 은 다

그 리 - 말 곡 - - -

시 군 목 하 데 - 도 리 도 놓 아 울 리 자 -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13)

<악보 6-14> 인정걸기 (떡다리도 놓았습니다.)

채 보 : 고헌민

떡 다 리 도 놓 아 붓 습 네 다 아

떡 다 리 놓 았 더 니 마 는

오 늘 은 요 왕 수 중 국 에

인 정 역 건 많 이 들

바 침 수 다

이 자 손 덜 세 경 우 이 태 왁 거 느 럼

댕 기 는 질 물 근 질 닥 아 즐 켜

원 정 들 고
 화물 선 모 래 배 에 추 념 기 선 왕 부 리 는
 자 손 - 델 토 -
 오 늘 은 이 요 왕 수 중 고 운 절 에
 인 정 이 나 결 함 시 면
 재 수 소 망 시 경 -
 선 관 질 발 류 와 줍 네 다
 관 권 - - - 님 아 아 이 고 고 합 - 수 다
 모 랫 배 델 랑 땡 기 는 절 에 바 다 에 - 해
 아 이 고 최 념 기 자 손 델 토 인 정 - 울 립 - 네 다

화물선 허영 외국도 다니 꼭
 허는 길에 선관질 - 발류아 리즘 씨
 원정 드럽 네 다
 인정 걸음 - 싶네 다
 저 인정역 건 많이 받아 당
 요왕 선왕 상 더 래 - 헤
 많이 올림 시대 이 자 손 덜
 올금년이랑 재수소망 시겨 - -줍씨 - -
 원정 드려 가며 - - -
 그리 말 고 - -옥 요왕 수중 고운 질을

이 번 참 예 - 잘 닦 아 앙

일 만 해 너 어 부 일 동 - - -

제 수 소 망 논 텐 허 경 저 우 영 다 리 로 관 도 구 왜 다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6-14)

요 왕 고 운 수 중 절 - - -

치 워 닦 아 습 네 다 - - -

요 왕 시 군 문 도 잡 으 래 갑 니 다

<연물 6-12> 올구멍 메우기

자진중판 (↓ = 138)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굉	1
						두	두					
		당		두루루	구당	당	당	당			굉	2
						번	번	번				
	구당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열		굉	굉	3
						두	두	두				
					구당	당	당	당			굉	4
			두루루				번	번				
9	6	4-5	3	² 7-8	1	8	2-7	1	8	2-7	1	순서
심방은 한 손에 신칼을 들고 다른 한손에 쌀을 한 줌 쥐어서 요왕질 입구에서부터 요왕질 바닥에 쌀을 뿌리며 구멍을 메우는 시늉을 짧게 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연물 6-13> 떡다리 놓기

늦은석 (♩=66)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괴	1
				두	두		낭	
			구당		당		들	2
		당			변		랑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3
					두			
		구당			당			4
	두루루				변			
6	3-4	2,5	1	6	1	2-6	1	순서
심방은 한 손에 신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떡이 들어 있는 그릇을 들어서 요왕질로 가서 요왕질 바닥에 떡을 조금씩 뜯어서 뿌린다. 이때 ‘떡다리도 놓아줬습네다. 아~ 아’하는 대사를 한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징

<연물 6-14> 인정결기

늦은석 (↓=66)						
북		설채		대영		박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당		열		굉	괴	1
		두	두		낭	
		당	당		들	2
두		번	번		랑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3
			두			
	당		당			4
			번			
2	1	2	1	2	1	순서
심방은 인정결기 사설이 끝나면 제장 바닥에 앉아서 신칼점을 친 후 “고맙습니다.”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사설을 한다. ▶ 늦은석 연물치기가 짧게 이루어진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요왕 질침 과정은 신을 맞아들이는 영신과정으로서 먼저 심방이 사설을 낭창하고 그 사설에 맞는 내용을 연극적인 춤 행위로 표현하는데 무가는 속도나 가락이 변화없이 비교적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어 낭창되어지고 연물 또한 자진 중판이 주가 되어 연주되며 마무리는 늦은석으로 이루어진다.

심방은 대부분의 사설을 요왕질 입구에 서서 하거나, 제장 가운데에서 신앙민들을 바라보며 낭창한다. 하지만 인정 걸기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사설을 낭창하는데, 떡다리 놓기가 끝나고, 인정걸기가 시작될 무렵 심방은 신칼을 든 채로 신앙민이 앉아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그 앞에 앉아서 사설을 낭창하기도 하고 또는 일어서서 신앙민들을 가까이에서 마주 보며 사설을 낭창한다. 이 때 소미는 앉아있는 신앙민들에게 인정을 걷는다. 그러면 심방은 “만원짜리가 몰랑몰랑허구나”하는 우스개 소리도 던진다.

1) 구성음



2) 선율

‘레’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설이 낭창 되어지다가 2도 하행하여 ‘도’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도’를 경과하여 4도 밑인 ‘라’로 ‘레-도-라’ 진행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리고 ‘레’를 잘게 떨어주기도 하고 마지막 인정걸기에서는 ‘라’를 떨어져 가창한다.

사설의 마무리는 마지막 사설의 첫 부분을 고음으로 내지르고 끝부분은 말하듯이 사설을 엮어서 낭창한 뒤 마지막 음절을 불특정한 음으로 낭창한 뒤 자연스럽게 끌어 올리거나, 흘러내려 소리내는 경우와 또는 사설 낭창이 이루어지는 동음에서 마지막 음절을 길게 빼어 소리내는 경우 2가지가 나타난다. 먼

저 마지막 사설의 첫 부분을 고음으로 내지르고 끝부분은 말하듯이 사설을 엮어서 낭창한 뒤 마지막 음절을 위로 자연스럽게 올려 소리내거나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경우는 (가) 요왕문 돌아봄, (나) 언월도로 베기, (다) 작대기로 치우기, (라) 은비파비로 파기, (마) 돌 치우기, (바) 발로 고르기, (카) 요왕다리 놓기, (타) 올구멍 메우기, (하) 인정걸기가 해당되고, 불특정한 음이 아니라 사설 낭창이 이루어지는 동음에서 길게 빼어 소리내어 사설 낭창을 마무리하는 경우로는 (사) 미렛깃대로 고르기, (아) 이슬다리 놓기, (자) 마른다리 놓기, (차) 나비다리 놓기, (파) 떡다리 놓기가 해당된다.

요왕 질침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8 > 요왕 질침

제차	행위	사용악기	비고
2. 요왕질침			
① 요왕문 돌아봄	무반주 낭창·춤	북·설쇄·대영	· 요왕길을 치우는 과정을 춤으로 보여줌
② 언월도로 베기	"	"	
③ 작대기로 치우기	"	"	
④ 은비파비로 파기	"	"	
⑤ 돌치우기	"	"	
⑥ 발로 고르기	"	"	
⑦ 미렛깃대로 고르기	"	"	
⑧ 이슬다리 놓기	무반주 낭창·연물	"	· 사설이 끝남과 동시에 대영, 설쇄, 북의 연물치기 이어짐
⑨ 마른다리 놓기		"	
⑩ 나비다리 놓기		"	
⑪ 요왕다리 놓기·차사다리 놓기	무반주 낭창·춤	"	
⑫ 올구멍 메우기	"	"	
⑬ 떡다리 놓기	"	"	
인정걸기	무반주 낭창	무반주	

3. 요왕문 열림

요왕 16문을 여는 과정을 북과 장구반주에 의한 가창으로 표현하는데 무가는 정태진 심방이 혼자 부르고 소미들과 신앙민들은 심방의 가창에 맞추어 초군문부터 팔군문까지 요왕문이 열리는 것을 행위로 표현한다.

소미들과 신앙민들이 요왕질 사이에 꿰어앉아 요왕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심방은 요왕문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노래를 하고 신칼점을 쳐서 문이 열렸다는 점괘가 나오면 심방이 먼저 ‘열려맞자’를 선창하고 북반주를 하는 소미가 ‘열려맞자’ 부분을 후창한다. 그러면 요왕질에 꿰어 앉아 있던 신앙들이 앉은 채로 절을 하고 소미가 요왕문 하나를 연다.

초군문부터 마지막 팔군문까지 쉬는 부분없이 계속 가창 되어지는데 요왕문 하나가 열릴때마다 ‘열려맞자’와 ‘열려리 동국’이 가창되며 제장에 설비된 요왕문(요왕질 양 끝에 세워준 뗏가지 16개, 한쪽에 8개씩) 즉 뗏가지 2개씩을 묶어 요왕문 8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나씩 뽑는 행위를 통해 어느 요왕문이 열리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랫말은 뗏구를 이루어 반복되며 초군문 열기는 ♩=63으로 가창하는데 마지막 팔군문 열기를 가창할 때에는 ♩=84로 많이 빨라져 있으며, 가창시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음도 조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가. 초군문 열기

<악보 7-1> 초군문 열기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63

산 아 — — 산 아 — — — — — 산 아 — — 읊 씨 — — — — —

청 금 산 요 왕 이 요 — — — — — 백 금 산 도 요 왕 이 요 — — — — —

눈 이 멀 — 근 선 왕 님 네 — — — — — 땡 기 는 질 — — — — —

선 관 질 발 류 와 리 줍 씨 — — — — — 원 정 — — 드 리 며 — — — — —

무 억 선 선 왕 배 나 모 랫 배 — — — — — 선 왕 — — 배 나 — — — — —

땡 기 는 질 불 근 — 질 선 관 질 을 발 류 와 조 손 — — 만 창 히 어 주 곽 —

채 남 기 — — 선 왕 — — 선 주 님 네 — — 동 해 바 당 서 해 바 당 땡 기 는 질 —

선 관 질 발 룬 씨 — — — — — 산 아 — — 산 아 — — — — —

해 녀 일 — 동 — — — — — 아 끈 — 망 사 리 영 어 —

거느 — 리 영 — — — — — 깊은 물 샘 — — 얇은 물 샘 — —
 숨쉬 영 땀 기는 자 손 털 — — — — — 녀 나 게 혼 — 나 게 말 꼭 — — — — —
 계 수 소 망 시 겨 줌 씨 — — — — — 꽃 은 자 손 곧 질 랑 — — — — —
 이 한 집 에 아 니 땀 기 고 요 왕 질 에 — — — — — 아 니 땀 긴 자 손 들 도 이 번 참 에 —
 새 해 부 터 합 동 허 영 — — — — — 인 정 이 영 많 이 걸 껴 우 다 — — — — —
 이 자 손 털 — 토 — — — — — 땀 기 는 — 선 관 질 발 뽀 줌 씨 —
 청 금 산 요 왕 — — — — — 동 의 청 요 왕 문 이 나 — — — — —
 열 — 러 맞 자 열 — 러 맞 자 열 러 리 동 국 — — — — —

1) 구성음



노랫말의 첫 시작음은 (1,2마디 첫박의 음)은 ‘시,도,레,파’로 초군문 열기에 나타나는 모든 출현음이 골고루 시작음으로 사용되나 ‘시’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다른 음에 비해 ‘시’음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중요하게 사용되어 지는 것이 특징이다.

2) 선율

‘시’에서 2·3도 상행하는 선율과, ‘레’에서 3도 상행 및 2도 하행하는 선율이 많이 나타나며 가락과 장단꼴이 반복된다.

나. 이군문 · 삼서 도군문 · 사군문 열기

이군문 열기 ♩ = 70

삼서 도군문 열기 ♩ = 72

사군문 열기 ♩ = 72

<악보 7-2> 이군문 열기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70

서해 용 - 이백금 산문 이 나 - - 하 열려 리 동 산 - - - -

무악 산 선 왕 배 에 - - - - - 모랫배 선 왕 - 배 - - - - -

채 념 기 선 왕 배 여 - - - 일 만 - 해 녀 - - - - -

압 끈 - - 망 사 리 물 망 사 리 - 거 느 - - 리 었 네

앞 장 을 볼 커 리 줍 씨 - - - - 이 자 손 딸 - 인 정 역 건 결 업 수 다 -

서 의 백 요 왕 문 도 - - - - - 열려 리 줍 씨 - -

애 들 큰 일 칭 원 현 일 - - - - - 불려 리 줍 씨 - -

해 녀 어 부 념 네 - - - 인 정 역 건 결 업 수 다 -

사 낭 감 바 - - - - 열 - 려 맞 자 열 - 려 맞 자

<악보 7-3> 삼서 도군문 열기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70

남 해 안 의 청 요 왕 문 이 여 -- -- 이 대 왕 의 -- 해

이 번 참 에 인 정 을 -- -- 많 이 많 이 걸 엄 수 다 -- -- -- --

채 넌 기 신 주 선 왕 선 주 -- -- 땡 기 는 질 이 영 -- -- -- --

어 는 모 래 옛 배 -- -- -- -- 화 물 선 배 에 -- -- -- --

땡 기 는 질 이 나 -- -- -- -- 무 역 선 물 에 -- -- -- --

해 너 일 둥 땡 기 는 질 인 정 하 와 영 걸 엄 습 네 다

산 아 산 아 -- -- -- -- 열 -- 러 맞 자 열 -- 러 맞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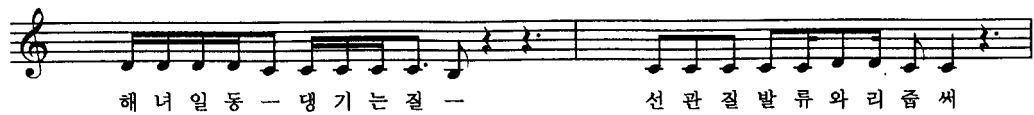


<악보 7-4> 사군문 열기

가창 : 정태진(남: 5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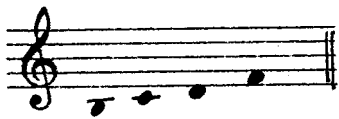
채보 : 고현민

♩ = 72





1) 구성음



노랫말의 첫 시작음은 (1,2마디 첫박의 음)은 '시,도,레,파'로 요왕문 열기에 나타나는 모든 출현음이 골고루 시작음으로 쓰이나 '시'음의 사용이 초군문 열기에서보다 적어졌으며, 삼서도군문·사군문 열기에 가면 '시'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시'가 사용되었던 곳에 '도,레'음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율

요왕문 열기에 사용된 '시, 도, 레, 파' 음이 차례로 순차 상행 및 하행하며 선율을 만들고 있으며 가락이나 장단꼴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다. 오군문·육군문·칠군문 열기·팔군문 열기

오군문 열기 ♩ = 80

육군문 열기 ♩ = 80

칠군문 열기 ♩ = 84

팔군문 열기 ♩ = 84

<악보 7-5> 오군문 열기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80

동 경 국 대 왕 문 이 여 — — — — 산 아 산 아 — — — —

이 대 왕 의 인 정 역 건 — — — — 많 이 많 이 결 업 습 네 — — — — 다

이 자 손 덜 땀 기 는 — — — — 질 저 해 상 영 업 — — — — —

모 랫 배 선 왕 이 나 — 하 — — 어 는 어 히 — 히 —

일 만 어 부 추 념 기 — — 선 왕 이 나 — 하 —

또 이 저 는 — — — — 해 녀 — 물 망 사 리 거 느 령 —



<악보 7-6 > 육군문 열기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80



영 허 영 으 — 혼 선 관 질 잘 발 류 와 줍 씨 —

무 억 선 — — 모 랫 배 채 념 기 선 왕 땡 기 는 질

선 관 질 발 류 곡 — — 해 녀 덜 물 망 사 리 거 느 령

짚 은 물 썸 알 은 물 썸 — 숨 비 해 영 땡 기 는 질

너 나 게 혼 나 게 맵 씨 — — — 고 말 수 다 — 하

열 러 맞 자 열 — 러 맞 자 열 러 리 동 국 — —

<악보 7-7> 칠군문 열기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84

요 왕 태 전 문 이 여 - - - 열 러 리 줍 씨 - 허

쥬 납 기 선 왕 님 이 나 - 하 화 물 선 선 왕 이 나

무 역 선 선 왕 이 나 땡 기 는 절 이 여 - -

일 만 해 녀 - 허 땡 기 는 절 - 마 다

선 판 질 발 류 와 주 곡 애 들 른 일 청 원 현 일 -

아 멩 해 도 하 나 걸 어 사 쿠 다 인 정 걸 어 가 며

열 - 러 맞 자 열 - 러 맞 자

<악보 7-8> 팔군문 열기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84

요 왕 황 저 국 문 이 여 — — — 막 문 으 로 — 호
 열 러 리 줍 씨 — 허 채 남 기 선 주 — —
 해 질 해 영 땡 기 는 질 — 허 무 역 선 선 주 — 허
 해 질 해 영 땡 기 는 질 또 이 저 — 는 — —
 모 랫 배 선 주 님 네 — 에 해 — — 땡 기 는 선 번 질 잘 발 류 와
 금 년 이 랑 재 수 소 망 아 — 하 — — — 시 겨 줍 씨 — 허 —
 산 아 산 아 — — — — 일 만 해 녀 — 어 — 허 — —
 물 질 허 래 땡 기 — 는 질 에 급 현 일 들 나 게 말 꼭 — — — — —
 산 아 산 아 — 하 인 정 역 건 — — — —



1) 구성음



노랫말의 첫 시작음은 (1,2마디 첫박의 음)은 ‘도,레,파’로 요왕문 열기에 나타나는 모든 출현음이 골고루 시작음으로 쓰이나 ‘시’음은 사용되지 않고 ‘도, 레’로 시작하는 것이 많다.

2) 선율

요왕문 열기에 사용되는 ‘도, 레, 파’음이 차례로 순차 상·하행 하면서 선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도, 레’음을 중심으로 가창선율이 만들어지고 있다.

3) 장단꼴

초군문 열기 처음 가창할 때 ♩ = 63이었던 빠르기가 칠군문, 팔군문 열기에 이르면 ♩ = 84로 빨라짐에 따라 앞에서 가창되었던 가락과 장단꼴이 뒷부분에서 똑같이 반복되는데도 앞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구분되어 들린다.

가락과 장단꼴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나 연행 내용이 점점 고조됨에 따라 악곡의 단순함을 극복하고 있다.

<연물 7-1> 요왕문 열림

♩ = 63															
장구 부호	북 부호	가 사	장구 부호	북 부호	가 사	장구 부호	북 부호	가 사	장구 부호	북 부호	가 사	장구 부호	북 부호	가 사	박
⊙		눈 이	⊙		백 금	⊙		청	⊙		산	⊙		산	1
:		멀 근	:		산 도			금	:		아			아	
								산							
		선 왕			요 왕			요 왕			읍			산	2
		님 네			이 요			이 요							
											씨			아	
⊙			⊙			⊙			⊙			⊙			3
						:									
	x			x			x								
										x					4
	x			x			x								
										x					
심방은 요왕질 끝에 서서 신앙민을 바라보며 가창한다. 해녀 및 신앙민 약 30여명이 3줄로 길게 요왕질에 앉아서 요왕문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심방의 가창을 듣는다. 초군문 열기 가창이 끝날 무렵 소미 1명이 바구니를 들고 앉아있는 신앙민 사이를 돌며 인정 행을 걷는다. 또한 심방은 자리에 앉아서 초군문 열기 가창을 하면서 신칼점을 치는데 문이 열렸다는 점패가 나오면 “열려맞자”를 가창하고 신앙민들은 절을 한다. 이어 소미가 초군문 뗏가지 2개를 뽑고 물 밑에 있는 무명천으로 둘둘 감는다. 하지만 점패가 잘 안 나오면 인정을 더 걷고 다시 신칼점을 친다. ▶ 장구와 북은 모두 기본적인 장단을 반복하는데 북은 1박째 보다 3박째 더 강하게 치며 윗부분 모서리(변죽)를 자주 친다.															연 행 및 연 물 치 기

♩ = 63															박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장구	북	가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부호	부호	사	
⊙		선	⊙		무억	⊙		원	⊙		선	⊙		원	1
:		왕	:		선			정	:		관		●	정	
	●										질				
		배			선왕			드리			발			드리	2
		나			배나			며			류와			며	
											리				
⊙			⊙		모랫	⊙			⊙		줍	⊙			3
					배	:					씨				
	x			x			:			●			●		
							x								4
	x			x											
							x								

초군문이 열리면 심방은 이군문 쪽으로 조금 걸어가서 다시 이군문 열기 가창을 하며 신앙민들은 앉아서 들으며 소미가 인정을 걷고, 심방의 신칼점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군문이 열리면 초군문에서와 같이 댓가지 2개를 뽑아 무명천으로 둘둘 말고 삼서도군문 열기에 들어간다.

▶ 북은 3박과 4박은 연달아 강하게 치는 경우가 있으나 엇붙임으로 강하게 치는 경우는 보이지 않으며 기본적인 장단이 되풀이 된다. 초군문부터 팔군문까지 속도가 점차 빨라지나 장단은 가락이 떨어지지거나 더해지는 경우가 없이 속도만 조금씩 빨라진다.

연
행
및
연
물
치
기

초 군 문 ↓ = 63														박	
곳은	재수	녀	숨	짚	거	아	해	산	선	애	동해	채	즈	댕기	1
자손	소망	나	쉬	은	느	끈	녀	아	관	물	바다	기	손	는	
									질	른				질	
곧	시	흔	댕	물	리	망	일	산	발	새	서	선	만	볼	2
걸	겨	나	기	썸		사			룹	라	해	왕		근	
랑	줍	게	는		영	영	동	아	씨		바		창	질	
		말	자	얇		어				도	댕	선	허	선	3
		곡	손	은							기	주	여	관	
			덜	물							는	님	주	질	
				썸							질	네	곡	을	발류와
	△				△	어		△	△		△			△	4
△		△	△	△		△	△						△		
										△					

이 군 문 ↓ = 70								초 군 문 ↓ = 63								박		
서	압	일	채	모	무	열	서	열	열	동	청	맹	이	인	새	아	이	1
느	끈	만		배		려	용	려		청	금	기	손	정	부	맹	집	
			기		산	리	의	리	려	왕	산	는		영				
리	망	해	선	선	선	동	백	동	맞	문	요	선	덜	많	합	자	아	2
	사	녀	왕	왕	배		금		자	나	왕	관		결	허	들	맹	
었				배		산	산	국				질	토	우			고	
네	몰		배				문		열			발				이	요	3
△	망		여				이					와				번	왕	
	사						나					줍				참	질	
									려			써					에	
		△				△	하	△	맞			△		△				4
	△		△	△	△		△		자	△	△		△			△	△	

삼 서 도 군 문 ↓ = 70										이 군 문 ↓ = 70								박
댕	화	어	채	댕	채	많	이	이	남	열	사	인	해	열	서	이	앞	1
기		모		기		많	번	대	해		낭	정	녀	려	의	자	장	
	선		기		기				안	려				리	왕		을	
는	배	옛	선	질이	신	결	참	왕	청	맞	감	역	어	줍	문	인	불	2
	에	배	왕		선	수	에		요	자			부		도	정	려	
질				영				의	왕		바	건		씨			리	
이	△		배		선		인		문	열		결	님			결	줍	3
나			여		주		정	헤	여	려		엄	수	네		엄	씨	
										맞								
		△		△				△		자	△	△		△				4
△			△		△	△	△		△				△		△	△	△	

사 군 문													
---------------------	--	--	--	--	--	--	--	--	--	--	--	--	--

오 군 문 ㅈ = 80																	박
열	사	앞	선	대	해	또	선	일	어	모	저	이	많	이	산	동	열
려	낭	장	왕	기	녀	이	왕	만	느	배	해	손	많	왕	아	경	려
																국	리
맞	간	불	배	는	몰	저	이	어	어	선	영	댕	결	인	산	대	동
자		려			망					이	업	는	습	정		왕	
	다	리	나	질	사	는	나	부	허						아		국
열		줍		무	거	느		추						역		문	이
	하	써	하	선	령		하	냄	허	하		질		건		여	
려													다				
맞												△	△		하		△
자	△	△	△	△	△	△	△	△	△	△	△			△	△	△	

육 군 문 ㅈ = 80																	박
고	녀	숨	짚은	해녀	해	선	채넙	무	선	영	높은	말	이도	요왕	열	요	열
맷	나계	비	물	덜	녀	관		억	관	허	파도	앙	저도	에	려	왕	려
			썸			질	기	선	질					서	려		리
수	흔	해	얹은	몰망	몰	발	선		잘발	영	만나	으	말	녀	맞	수	동
	나계	영	물	사리	망	류	왕		류와		게		곡	나계	자	중	
다			썸		사리	곡				으		네		도		국	국
	맷	댕기는		거느	거느		댕기는	모랫	줍		말	이	겁	말		개	
하	써	질		령	령		질	배	써	흔	곡	야	나계	곡		선	
																문	
△		△	△	△		△	△	△		△	△			△			
	△				△				△			△	△		△	△	△

칠 군 문 ↓ = 84													육군문		박
열	하 나	인	산	급현	물질	일	댕	무	화	채 냅	열	요 왕	열	열	1
	족 으	정	아	일 들	허 래	만	기	억	물	기	려	태 전	려		
려	나							선	선		리		리	려	
맞	인 정	역	산	나 게	댕	해	는	선	선	선 왕	죽	문 이	동	맞	2
자	결 엄	건		말 곡	기		질	왕	왕	남 이		여			
	수 다		아			녀				나	씨		국	자	
열	고 만				는		이	이	이					열	3
	다		하		질 에	허	여	나	나	하	허				
려														려	
맞	△	△	△		△	△	△	△	△	△	△		△	맞	4
자				△								△		자	

팔군문			칠 군 문 ㄴ = 84															박
열	막	요	열	인	아 맹	애 돌	일	산	시	금 년	댕	모	또	해	무	해 질	채	1
려	문	왕		정	해	른	만	아	겨	이 랑	기	랫	이	질	억	해 영	넙	
리			려		도	일	해 녀				는	배			선		기	
줍	으	황 저	맞	결	하 나	칭 원		산	줍	재 수	선	선	저	해	선	댕 기	선	2
		국			결 어	현				소 망	번	주			주	는 질		
씨	로		자	어	사 쿠	일	허	아	씨		질	님 네	는	영			주	
		문이	열	가	다		허			아	잘 발			댕 기 는				3
허	호	여		며					허	하	류 와	혜		질	허	허		
			려															
	△		맞	△	△	△	△	△	△		△		△	△		△	△	4
△		△	자							△		△			△			

팔 군 문 ↓ = 84																박	
열	하 나	인	산	금 현	물 질	일	산	시	금 년	댕	모	또	해	무	해 질	채	1
	죽 으	정	아	일 들	허 래	만	아	겨	이 랑	기	랫	이	질	억	해 영	넵	
려	나				해 녀					는	배			선		기	
맞	인 정	역	산	나 게	댕		산	줍	재 수	선	선	저	해	선	댕 기	선	2
자	결 엄	건		말 곡	기				소 망	번	주			주	는 질		
	수 다		아			어	아	써		질	님 네	는	영			주	
열	고 말				는	허			아	잘 발			댕 기				3
	다		하		질 에			허	하	류 와	해		질	허	허		
려																	
맞	△	△	△		△	△	△	△		△		△	△		△	△	4
자				△					△		△			△			

신앙민들이 3줄로 길게 요왕질에 가득 뿔여 앉아 있고, 심방은 요왕질 끝 즉 초군문 앞에 서서 가창을 시작한다. 초군문 열기 가창이 끝날 무렵 소미가 바구니를 들고 요왕질 사이에 앉아 있는 신앙민들에게서 인정을 건으며, 심방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가창을 계속 하면서 신갈점을 친다. 초군문이 열렸다는 점괘가 나오면 “열려맞자”를 가창하고, 요왕질에 앉아 있던 신앙민들은 손을 모아 절을 한다. 그러면 요왕질 맨 앞에 앉아있던 소미 2명이 초군문 댕가지 2개를 뽑아 무명천으로 둘둘 만다. 그리고 난 후 심방과 신앙민들은 이군문 쪽으로 몇 걸음 옮긴 후 이군문 열기 가창에 들어가며 위와 동일한 행위가 팔군문 열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북과 장구의 장단은 기본적인 장단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

<악보 7-9> 요왕문 열기 마무리

가 창 : 정태진(남: 57세)

채 보 : 고현민

♩ = 80

요 왕 황 저 국 태 진 문 — — 에 — — — 해

열 러 있 었 는 데 — — — — 해

요 왕 — — — — 채 서 관 장 님 전 —

요 왕 도 린 이 도 리 랑 초 처 이 처 불 천 소 의 랜
 뒤 돌 아 - - 점 점
 요 왕 계 신 님 전 - - 허
 요 왕 수 중 국 절 치 위 님 아 - 습 네 다 - - 하
 요 왕 절 - 치 웅 채 서 국 다 리 들 러 받 으 며 - -
 요 왕 - - 처 서 관 장 님 전 불 천 소 의 웨 다

연물이 이어 나온다. (참고: 연물 7-2)

요 왕 수 중 국 절 치 위 님 았 습 네 다 불 천 소 의 싶 네 다

(대사)

심방 - 자, 이번에 잘 요왕질이영 잘 치우곡 영허난 재수소망 일쿠다.

해녀일동 - 예

심방 - 해녀 어른들도 이번에 소망 일엄직 허우다.

해녀일동 - 예, 잘 보살펴 줘써양



(대사)

해녀일동 - 수고해수다 양

아이고 수고해수다.

<연물 7-2> 요왕문 열기 마무리

자진중판 (↓=138)								
북				실체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음	
구당	구당	구당		열		굉	굉	1
				두	두			
당			구당	당	당		굉	2
	두루루			번	번			
구당	구당	구당	구당	열	열	굉	굉	3
				두	두			
당			구당	당	당		굉	4
	두루루			번	번			
7-13 19-21	4-5 14-18 22-23	2-3 6	1	2-23	1	3-7 10 17-23	1-2 8-9 11-16	순서
심방은 사설이 끝나면 연물치기가 진행되는 동안 소미가 건네준 요왕문 열기(초군문~팔군문)를 한 댓가지를 둘둘 만 무명천을 들고 제장 가운데에서 빙빙 여러번 돈다. 소미는 이 댓가지를 둘둘 만 무명천에 불을 붙이고 정태진 심방으로부터 이어 받은 후 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땅 바닥에 놓는다.								춤 동작 및 연물 치기 특 징

늦은석 (↓=66)			
북	설취	대영	박
구음	구음	구음	
	열	굉	1
	두		2
	당	굉	
두	변		3
구당	열	굉	
	두		
		굉	4
1	1	1	순서
자진중판에 바로 이어 늦은석 연물치기가 진행되는 동안 정태진 심방은 제장 가운데에 앉아 신칼점을 친다. ▶ 늦은석 연물치기는 아주 짧게 한 장단 정도로 연주된다.			춤동작및연물치기특징

심방은 요왕질 입구에서부터 제장 가운데로 걸어 나오며 요왕문 열기를 마무리하는 사설 낭창을 한다. 이때 들고 있던 신칼을 소미에게 건내어 주고 맨손으로 사설을 낭창하게 된다. 사설 낭창 후 연물 치기가 바로 이어지며 심방은 요왕문 열기를 했던 뗏가지(양쪽2개씩 뗏가지×8군문= 16개)와 이를 둘둘 만 무명천을 들고 제장을 빙빙 돌다가 소미가 불을 붙인 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정태진 심방은 신칼점을 친 후 요왕문 열기를 마무리하는 사설을 짧게 낭창한다. 사설 중간에 심방과 해녀일동간의 대사가 삽입된다.

모든 요왕문 열기 사설 낭창이 끝나면 심방은 제장 양쪽에 앉아 있는 신앙민들을 향해 두손을 모으고 선 채로 인사를 하며, 해녀 및 신앙민들은 “수고해수다, 양” 하는 답례를 한다. 이로써 모든 요왕맞이 재차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표로 나타내어 보면 아래와 같다.

< 표 9 > 요왕문 열림

제차	행위	사용악기	비고
3 요왕문 열림	가창	북,장구	
① 초군문 열기	"	"	심방의 가창
② 이군문 열기	"	"	- 인정결기
③ 삼서 도군문·사군문 열기	"	"	- 신칼점
④ 오군문·육군문열기	"	"	
⑤ 칠군문·팔군문 열기	가창		열려맞자를
마무리	무반주 낭창·연물	북·설채·대영	선소리 후소리 리로 부름

IV. 결 론

제주도 영등굿은 해녀와 어부의 해산물과 풍어를 기원하는 곳으로서 해안부락을 따라 발달하였고 제주도의 각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제차를 보이고 있으나 영등굿의 핵심이 되는 요왕맞이 마당은 별다른 변화 없이 공통적인 제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등굿은 초감제와 본향뚬 등을 비롯한 여러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영등굿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마당은 요왕맞이로서, 요왕맞이 마당만 보아도 영등굿의 성격 및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따라서 영등굿에서 요왕맞이 마당이 중요함에 따라 어느 마을에서 행해지든 요왕맞이 마당은 특별히 변화되는 것이 없이 공통적인 제차를 보인다.

제주도민의 생업과 직결되어 공동 부락제로 열렸던 영등굿은 개인의 치병굿, 마을의 본향 당굿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하에 성대하게 치러지는 한편, 도민들의 생활과 바램이 굿 중 사설이나 가창에 표현되어 성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요왕맞이에 사용되는 음악은 무가와 반주음악이며 무가는 무반주 사설낭창 부분과 장구와 북반주에 의한 노래 가창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장단형의 낭창과 규칙적인 장단형의 가창부분과 일치한다.

또한 반주음악은 춤반주 음악과 무가 반주음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반주 사설낭창으로 이루어지는 제차는 신을 청하는 청신과정인 초감제 중에서 베포도업침, 날·국 섬김, 연유닭음, 군문열림, 새드림의 끝부분과 오리정 신청례가 해당되고, 신을 맞아들이는 영신과정인 요왕질침의 전 과정과 용왕문 열림의 끝부분이 해당되는데 군문열기는 사설낭창보다 연물치기와 춤 위주로 제차가 진행되고, 새드림과 요왕문 열기는 노래 가창 위주로 진행되다가 마무리 부분에만 무반주 낭창이 나타나며 요왕질침 과정은 심방의 연극적인 춤동작 위주로 제차가 이루어진다. 이는 요왕맞이 마당의 사설 흐름과 거

의 일치되는데 즉 굿의 처음인 초감제에서는 심방의 느리고 변화 없는 사설 낭창으로 천천히 영등굿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신궁문을 여는 군문열기에 이르러 점차로 굿판이 고조되면서 제장 양쪽에 마련된 연물이 동시에 빠르고 변화무쌍하게 연주되는 가운데 심방의 춤도 연물에 맞추어 격렬하게 이루어진다. 이어 모든 기를 쏟아붓고 한 고비를 넘긴 수심방은 잠시 쉬고, 굿판을 정리하며 신들의 오는 길에 부정한 것을 치우는 새드리는 가창이 다른 여심방에 의해 굿거리로 편안하게 불리어진다. 그리고 나서 영등신 및 여러 신들을 제장으로 모시는 오리정 신청례가 수심방에 의해 경건하고 느린 사설로 불리어지다가 신들이 오는 길에 나 있는 잡초와, 돌맹이 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치우는 동작을 심방의 연극적인 행위로 보여주게 된다. 이어 신들이 도착하여 요왕 16문을 하나씩 여는 재차에 이르러서는 모든 신앙민이 다 요왕문 앞에 꿇어앉아 문을 하나씩 같이 열어 나가는 노래를 부르며 기쁘고 경건하게 신들을 맞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요왕맞이 마당은 도민의 실제 생활 이야기를 신들에게 고하여 그들을 청하고 맞아들이는 모습을 이야기 전개에 맞게 느리고 빠른 사설 낭창과 춤, 연물, 연극적인 행위로 고조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하며 풀어나가다가 마지막은 신앙민 모두가 연행에 참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요왕맞이 마당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마당안에 사설낭창, 가창, 춤, 연물, 연극적인 연행이 모두 들어 있다. 보통 전체 굿 한판 속에서도 보기 힘든 연행들이 요왕맞이 마당 속에서 모두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야기 흐름과 결부되어 긴장되기도 하고 이완되며 풀어나가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사설은 보통 한음 위주로 변화 없이 밋밋하게 낭창 되어지고 사설 낭창시에 심방은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으며 연물 치기 또한 없다. 이는 사설 낭창 부분이 굿의 처음부분이거나 경건하게 신을 청하는 부분이기때 이와 맞물

려 느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설 낭창이나 가창 시 사용되는 음의 수가 적고 음역이 좁은 것도 그 특징을 반영한다.

셋째, 밋밋한 사설 낭창에 변화를 줄 때에는 보통 4도 위의 음에서 소리를 내지르면서 점차 하행하다 말하듯이 사설을 주위 엮으며 끝음절을 끌어 올리거나 내려서 마무리하는 경향이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제주도 방언이 갖는 특징과 유사하다. 처음 부분은 힘을 주어 강하게 말하다가 얼버무리듯 말을 주어서 엮는 것, 끝음절을 늘여서 올리거나 내리는 현상이 제주도 방언에는 많이 나타난다.

넷째, 사설 흐름에 따라 연물과 심방의 춤은 항상 같이 맞물려 움직이는데 극적인 부분은 가창보다는 연물과 춤에 의해 표현된다. 신궁문을 여는 군문 열기가 그러한데 문이 안 열리면 신들이 올 수 없기에 신들이 오는 문을 열게 하고자 심방은 제정신을 잃은 듯 제장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이때 연물 치기는 영등굿 전체 마당에서 유일하게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는 제주도 굿에 사용되는 악기가 모두 타악기이고 이들 악기가 갖는 역동성과 원초적인 정신들이 신을 모시는데 결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또한 각각의 연물은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없이 항상 같이 사용되는 것, 북장단이 연물의 흐름을 끌고 가는 점도 특이한 현상이다.

다섯째, 영등굿에 사용된 연물의 장단형은 모두 4박으로 표기되며 늦은석, 그리고 중판, 자진석을 묶어 2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다. 늦은석은 속도가 느리지만 잔가락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형만 나타나는데 (구당- 따/ 구당 - -/ 구당- 따/ 구당- -)과 ‘따’ 대신에 굴러치는 ‘두루루’가 들어가는 형태이다.

이에 비해 중판과 자진석에서는 비교적 복잡한 장단꼴이 나타나지만 기본형에 잔가락이 삽입되는 것에 규칙성이 보인다.

중판이 빨라져서 자진석 가락이 되는데 중판의 기본형은 (구당- -/ 당 - -/ 구당 - -/ 당 - -)이며 변화형 첫 번째는 약박에 ‘두’를 집어 넣어 치는 형태로 (구당- -/ - - -/ - -두/- 두구) 다음에 ‘당’으로 강하게 이어치는 것,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구당- 두/ 구- 두- 구/ 두- 구- 두/ 구- 두 -구)인데 여기에서 변화를 주어 엇불임으로 장단꼴을 연주하거나 굴러지는 주법을 넣어 연물치기를 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요왕맞이 마당의 연물치기는 늦은석으로 시작하여 늦은석으로 마무리 되는데 이는 굿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다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갈등이 나타나고 위기가 고조되며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정리되고 마무리 지어지는 이야기의 흐름과 일치한다고 본다.

여섯째, 요왕맞이 마당에 나타나는 가창은 ‘새드리는 노래’와 ‘요왕문 열기’인데 선율과 장단꼴이 쉽고 반복적인 한편, 사설의 내용이 현재 어린이들의 생활과 연결되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충분히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새드리는 노래’는 주변 및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여 修身하는 것으로 가사를 그대로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어린이들 상황에 맞게 조금 바꿔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으며, ‘요왕문 열기’ 가창은 자신의 바램이나 모듬 및 반 친구들의 바램을 정리하여 친구들이 요왕문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소원을 노래한다면 충분히 제주도 문화를 이해하는 한편 재구성하여 손쉽게 연행을 하면서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주도 영등굿은 해녀굿, 줌수굿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의 산업구조가 바뀌에 따라 해녀의 존재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아울러 영등굿이 행해지는 곳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승·보존하고 있는데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제주도 영등굿의 음악적 특징이 민요 및 다른 당굿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음악의 특징을 점차로 조명하는 한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담수결편’ 「증보 탐라지」, 1954.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제주 : 칠머리당굿 보존회, 1998.
- 이상일, 「굿과 놀이」, 서울 : 문음사, 1981.
- 장주근, 「한국민속논고」, 서울 : 계몽사, 1986.
- 장주근 · 이보형, 「제주도 영등굿」, 서울 : 열화당, 1983.
- ‘제주목 풍속조’ , 「신증동국여지승람」.제 38권 권 V. 서울:민족문화
문고 간행회, 1970.
- 제주도문화예술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주: 제주도, 1995.
- 진성기, 「남국의 전설」, 서울 : 교학사, 1981.
- 현용준, 「제주도 신화」, 단문당, 1976 .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서울: 신악문화사, 1980.

< 논문 >

-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 제주대학, 1982.
- 김영돈 · 현용준, 「제주도 무당 굿놀이」,문화재 관리국, 1965.
- 김은자, ‘제주도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 연구’,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 문무병,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 제주대학, 1984.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 제주대학, 1993.
- 문화재 관리국, 「무무」, 서울: 문화재 연구소, 1987.
- 문화재 관리국, 「중요무형문화재해설-놀이와 의식」, 서울 :문화재 관리국
- 변성구, ‘제주도 서우젯소리 연구’, 민요론집 창간호, 민요학회, 1989.

- 서대석, '판소리와 서사무가 비교연구' ,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 34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1979.
- 이보형, 「한국민속 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문화재 관리국, 1974.
- 이보형, '도살푸리와 동살푸리 비교', 1972.
- 원일, '동해안 진오귀굿 중 장수굿의 짜임새와 장단구조-청보장단을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창훈, '칠머리 당굿의 춤 연구', 제주: 제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장주근 · 현용준 , '제주 칠머리 당굿'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문화재 관리국 , 1985.
- 장주근, '제주도 천지창조 설화의 문화 영역설', 제주도 제38호. 제주 : 제주도청, 1969.
- 진성기, '제주도 영등굿'. 제주도 제53호, 제주: 제주도, 1972.
- 최종민, '황해도 철몰이 굿의 음악적 연구', 동덕여자대학, 1980.
- 한만영 · 이보형, '은산별신제의 음악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 연구소, 1977.
- 현용준 , '제주도 당신화 화고(1)', 제주도 제3호, 제주: 제주도청, 1961.
-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창간호. 민속학회 , 1969.
- 현용준, '본풀이의 형식과 내용', 한국언어문학 창간호, 한국언어문학 , 1963.
- 현용준, '당신화의 모티브와 기본형식-제주도 당신화고(2)', 제대국문학보 제2호, 제주: 제대 국문학과, 1964.
- 현용준, '당신화의 내용구성과 배경민속신앙-제주도 당신화고(2)', 제주대학보 제6집 제주: 제주대학, 1964.
-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성격과 신통' 제주도 제17호, 제주: 제주도청, 1964.
- 현용준, '제주도의 무격', 제주대학보 제7호, 제주: 제주대학, 1965.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질병관'. 제주도 제21호, 제주: 제주도청, 1965.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례'. 한국언어문학 제3집, 한국언어문학회, 1965.
- 현용준, '제주도 무당굿놀이 개관'. 문화재 제2호, 문화재 관리국, 1966.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비교연구(2)', 제대국문학보 제5집, 제주: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973.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비교연구(3)', 제주대학논문집 제6집, 제주: 제주대학, 1973.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의례연구', 제주대학논문집 제7집, 제주: 제주대학, 1975.

< 참고 자료 >

- 칠머리 당굿 영등 송별제 비디오 테잎,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칠머릿당, 제주 민요패 소리왓 촬영, 1998. 3.
- 칠머리 당굿 주요 장면 발췌 연행 비디오 테잎, 민속문화 발표회, 제주시 한라 체육관, 고현민 촬영, 1999, 9, 14.
- 칠머리 당굿 영등 송별제 비디오 테잎,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칠머릿당, 고현민 촬영, 2000, 3, 19.
- 칠머리 당굿 영등 송별제 비디오 테잎,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칠머릿당, 고현민 촬영, 2001, 3, 8.

ABSTRACT

A Study on *YoungDungGut*

-Focusing on the *Yowangmaji* -

Ko, Hyun-min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Mi-hye

Each village in Jeju has a lot of Dangs [당], which mean the place where the minor gods of villages or of family are dwelling or enshrined. People who have a cause of anxiety as well as desires in their own family go to the Dang comfortably to pray to gods they believe in.

The form of small scope of Binyom [비념], individual Gut and Danggut [당굿] held by all the villagers have been prevalent so far.

The start of Jeju peoples's that year started with Youngdunggut [영등굿]. They had to get a clothe, food and living place from the sea. Even their lives depended on the sea. So they have performed Youngdunggut on the large scale with their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Youngdunggut, we can get the very important cultural information about the

way of thinking, the life style of Jeju people, and the characteristic of Jeju folk music.

Even though some people have made lots of effort for a long time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Korean literary and folkloristic values, the musical approach has been insignifican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ide people with an understanding of Jeju Youngdunggut as a whole through the musical characteristic of the part of Yowangmaji [요왕맞이] among Youngdunggut.

The order in this thesis is as follows; First, looking into the general contents about Jeju Youngdunggut, Second, analyzing the musical contents of the part of Yowangmaji(Chogamje, Yowangjilchim, the Opening of Yowangmun) by laying emphasis on Singing a Story, Yeonmul, and Simbang's Yeonhaeng(Simbang means a kind of an exorcist or a shaman in Korea).

Through listening to a tune and composing music, I have analyzed Singing a Story by laying stress on organized sounds and melody. At the same time, through Yeonmulchigi, I have studied what the characteristics of Yeonmul's [연물] Jangdan are and how Yeonmulchigi connects with Simbang's [심방] Yeonhaeng [연행] and how it is composed of.

We can the musical characteristic of the part of Yowangmaji is in the field of organized notes and melody is that the organized notes are smaller less than 5 intervals, singing a story using most of one or two notes, repeating Jangdankkol [장단꼴] and melody without changing line of melody. However,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 first sound falls down from higher pitch when finishing singing a story, binding and singing final part of a story as if talking, dropping or raising last syllables.

As for Yeonmulchigi [연물치기], the beginning is always composed of Gamjangyeonmul [감장연물] touching basic Jangdan, later performing complicated Jangdankkol [장단꼴], and finally finishing by touching basic beats. The role of a drum is adding tone colors to Yeonmul. Simbang's dance is connected with a story of Ggut, rising high and releasing low, catching up with a stream of Yeonmul. The dramatic climax is performed vigorously by Yeomul and dance rather than singing.

In Chogamje, Simbang's Singing a Story and his or her Chum(which means dancing) and Yeonmul is importantly mentioned in each of the order of the minor sacrificial rites.

In Yowangjilchim, Simbang's Yeonhaeng is considered important, which is held to comparatively simple and short rhythm of Musok and to Yeonmul.

The Opening of Yowangmun consists of Simbang's singing with regular beat and of Somis' Yeonhaeng. In each of the order of the sacrificial rites, something out of Muga, dramatic dancing motion and Yeonmul stands out in bold relief. Through this course the order of the sacrificial rites are held. Yowangmajigut has been made up of such an order of minor sacrificial rites.

It is possible for us to understand Gut well if we understand synthetically Sing a Story, Yeonhaeng and Yeonmul. Therefore, I expect this thesis will help you to understand Jeju Youngdunggu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Elementary Music Education) in February, 2004.